
2016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2017년 2월

발행인 박태영 상담센터장

연구자 심은정 상담교수

심다연 전임상담원

이지은 전임상담원

임아리 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연구방법	3
1. 조사대상	3
2. 조사도구	4
3. 자료처리	5
III. 연구결과 및 분석	6
1. 일반적 사항	6
2. 정신건강 실태	29
1) 전체 신입생들의 정신건강의 일반적 특성	30
2) 성별 비교	40
3) 단과대별 비교	44
3. 자살충동	49
1) 자살충동 여부	49
2)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51
3) 자해충동 여부	52
4) 자살충동의 심각성	53
5) 자살충동 대처방안	60
4. 학생상담센터 관련	64
IV. 결론 및 제언	67
V. 부 록	73
1. 정신건강 가이드	73
2. 양성평등 가이드	81
3. 학생상담센터 이용가이드	84
4. 2016 신입생 실태조사 설문지	87

<표 목차>

<표 1> 신입생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	3
<표 2> 단과대별 응답분포	3
<표 3> 조사도구 구성 내용	5
<표 4> 단과대별 성별분포	7
<표 5> 학과별 성별분포	7
<표 6> 신입생 연령분포	9
<표 7> 단과대별 연령분포	10
<표 8> 단과대별 종교분포	12
<표 9> 단과대별 주성장지	13
<표 10> 단과대별 입시분류	14
<표 11> 단과대별 가족형태	16
<표 12> 단과대별 주거상태	17
<표 13> 단과대별 사교육 형태	18
<표 14> 단과대별 대학진학 목적	20
<표 15> 단과대별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	22
<표 16> 단과대별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23
<표 17> 단과대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25
<표 18> 단과대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26
<표 19> 단과대별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	27
<표 20> 각 영역별 점수에 대한 특성	29
<표 21> 정신건강 각 영역의 일반적 특성	30
<표 22> 성적자기결정능력의 일반적 특성	31
<표 23> 성희롱·성폭력 경험	31
<표 24> 성희롱·성폭력 상대	31
<표 25>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안	32
<표 26> 상담센터 의뢰 의향	32
<표 27> 의뢰하고 싶지 않은 이유	33
<표 28> 음주의 일반적 특성	33
<표 29> 지난 한 달 동안 1잔 이상 음주 여부	34
<표 30> 주 2회 이상 평균 음주량 음주 여부	35
<표 31>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	35
<표 32> 인터넷 사용의 일반적 특성	36
<표 33> 불안의 일반적 특성	37
<표 34> 우울의 일반적 특성	37
<표 35> 최근 1년 간 2주 연속 절망감 경험 여부	38
<표 36>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 여부	38

<표 37> 하루 흡연 양	38
<표 38> 금연에 대한 생각	39
<표 39> 성별에 따른 전체 영역 비교	40
<표 40> 성별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	40
<표 41> 성별에 따른 음주	41
<표 4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	41
<표 43> 성별에 따른 불안	42
<표 44> 성별에 따른 우울	43
<표 45> 단과대별 전체 영역 비교	44
<표 46> 단과대별 성적자기결정능력	45
<표 47> 단과대별 음주	46
<표 48> 단과대별 인터넷 사용	46
<표 49> 단과대별 불안	47
<표 50> 단과대별 우울	48
<표 51> 자살충동 여부	49
<표 52>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 여부	49
<표 53> 단과대별 자살충동 여부	50
<표 54>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51
<표 55>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 주된 이유	51
<표 56> 1개월 간 자해충동 여부	52
<표 57> 1개월간 자살충동 여부	53
<표 58> 1개월간 자살계획 여부	53
<표 59> 1개월간 자살시도 여부	53
<표 60> 일생동안 자살시도 여부	54
<표 61> 성별에 따른 1개월 간 자살에 대한 생각 여부	54
<표 62> 성별에 따른 1개월간 자살계획 여부	55
<표 63> 성별에 따른 1개월간 자살시도 여부	55
<표 64> 성별에 따른 일생동안 자살시도 경험	56
<표 65> 단과대별 1개월 간 자살충동 심각성	56
<표 66> 단과대별 일생동안 자살시도 경험	59
<표 67> 자살충동 대처방안	60
<표 68> 성별에 따른 자살욕구 대처방안 비교	61
<표 69> 단과대별 자살욕구 대처방안	62
<표 70>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원인	64
<표 71> 심리적 갈등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여부	65
<표 72> 대학 내 심리적 고민 전문가의 필요여부	65
<표 73> 단과대별 상담 받고 싶은 주제	66

<그림 목차>

<그림 1> 신입생 성별분포	6
<그림 2> 신입생 연령분포	10
<그림 3> 신입생 종교분포	11
<그림 4> 신입생 주성장지	13
<그림 5> 신입생 입시분류	14
<그림 6> 신입생 가족형태	15
<그림 7> 신입생 주거상태	17
<그림 8> 신입생 사교육 형태	18
<그림 9> 신입생 대학진학 목적	20
<그림 10> 신입생의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	21
<그림 11> 신입생의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23
<그림 12> 신입생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24
<그림 13> 신입생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26
<그림 14> 신입생이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	27
<그림 15> 음주의 일반적 특성	34
<그림 16> 인터넷 사용의 일반적 특성	36
<그림 17>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원인	64

I. 서론

우리 대학은 민족 최초의 대학교로서 ‘진리와 봉사’라는 이념을 내걸고 고등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이 되면 120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교이다. 긴 역사 속에 우리 대학은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자주 독립을 위해 애국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도자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은 1938년에는 폐교라는 아픔을 스스로 결단하면서까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1945년 광복이후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실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지속적인 신입생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신입생들의 개인적 특성 및 청소년기를 벗어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가치 갈등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학교 및 학과 특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다양한 선행연구들 및 고등교육관련 발간자료들에서도 대학 신입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입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홍성연, 2016)¹⁾. 대학이 이러한 다양한 조사와 관심을 바탕으로 신입생들의 필요(needs)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때,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적 여유, 자율적인 학업일정, 학습방법의 변화, 활동범주의 변화 및 확장으로 인해 대부분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혼란을 겪게 된다(홍성연, 2016)²⁾. 더욱이 교육 과정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한 단계 상위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에 올라온 것뿐이지만, 법적 연령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그들이 겪을 혼란과 가치갈등은 더욱 다양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 상담센터에서는 매 해 신입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신입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예측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울타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2016년에 시행한 신입생 실태조사는 아래 범주를 포함한 총 5가지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신입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포함한 일반적 사항과 입학과정 및 대학에 대한 인식, 대학생활 및 일상생활, 학교상담센터 관련과 개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정신건강상태는 성(性), 알코올, 인터넷 사용, 불안, 우울, 자살, 기타(흡연)과 같이 대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 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위의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에 참여한 신입생들의 일반적 인적사항, 둘째, 6개 영역의 정신건강상태(성별, 단대별 분석), 셋째, 대학생활에 대한 분석과 결론 및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간되어 온 자료들을 근거로 매 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신입생들의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단과 대학 및 성별에 따른 특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1) 홍성연,(2016), “대학 신입생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교육종합연구, 14(1): 271-295.

2) 위 각주와 동일.

보고서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및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 측은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 대한 다각도적인 정보 제공 및 이해하여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과정의 적응과 대학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본 보고서는 신입생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대학 환경과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상담계획 수립 및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자세히는 학과별 또는 상담센터를 비롯한 교내의 각 부처 별로 신입생 특성에 맞는 제도 및 진로지도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분석된 자료들은 우리 대학의 홍보, 입시, 학사지도 등과 관련된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6년 송실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말경부터 4월 말경까지 약 한 달간 수행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총 43개 학과가 참여하였으며, 10개의 단과대학이 참여하였다.

<표 1> 신입생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송실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참여인원	2,076명
조사도구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기간	2016년 3월~4월
조사영역	일반적 사항, 대학생활, 정신건강영역

본 보고서는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2,076명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한 학생 중 남학생은 1134명(54.6%), 여학생은 774명(37.3%)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 253명(12.2%), 자연과학대학 59명(2.8%), 법과대학 48명(2.3%), 사회과학대학 251명(12.1%), 경제통상대학 124명(6.0%), 경영대학 339명(16.3%), 공과대학 391명(18.8%), IT대학 551명(26.5%), 예술창작학부 16명(0.8%), 스포츠학부 42명(2.0%)로 나타났다.

<표 2> 단과대별 응답 분포

구 분	인원(%)
인문대학	253(12.2)
자연과학대학	59(2.8)
법과대학	48(2.3)
사회과학대학	251(12.1)
경제통상대학	124(6.0)
경영대학	339(16.3)
공과대학	391(18.8)
IT대학	551(26.5)
예술창작학부	16(0.8)
스포츠학부	42(2.0)

2. 조사도구

본 신입생 실태조사에 활용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전체 크게 두 영역으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인 일반적 사항 및 정신건강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 및 <표 3>에 정리하였다.

- 1) 일반적인 사항(27문항): 성별, 연령, 병역, 종교, 주성장지, 출신고교, 입시여부, 가족형태, 현 주거상태 및 대학에 입학한 주된 동기, 일상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 상담센터에서 기대하는 서비스, 그리고 상담센터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 2)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문(20문항):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희롱·성폭력 시 대처, 성희롱·성폭력 시 상담 의뢰의향, 양성평등(한국여성민우회 가정과성상담소 개발)에 대한 인지측정을 사용하였다.
- 3) 음주에 대한 설문(10문항):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선별도구로 음주문제를 가질 위험이 있는 개인을 조기에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인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을 사용하였다.
- 4) 인터넷 이용에 대한 설문(23문항): 한국정보진흥원(2005)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진단 <A척도 성인자가진단용>을 사용하였다.
- 5) 불안에 대한 설문(20문항): 상태불안을 측정도구는 Spielberger 등(1970)의 STA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Kim과 Shin (197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 6) 우울에 대한 설문(21문항): 한국판역학연구센터에서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 7) 자살에 대한 설문(9문항): 한국판역학연구센터에서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 8) 기타(흡연)에 대한 설문(4문항): 한국판역학연구센터에서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표 3> 조사도구 구성 내용

구 분	조사내용
개인적 사항	성별/ 연령/ 병역/ 종교/ 신앙심 주성장지/ 출신교/ 입시여부 가족형태/ 현 주거상태
입학과정 및 대학에 대한 인식	사교육 형태 대학진학의 목적 대학 및 학과 선택 시 결정요인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
일반적 사항	대학생활의 흥미 및 고민 학교에서 도움 받고 싶은 영역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대처방법 진로결정의 어려움
대학상담센터 이용관련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 및 도움 유무 고민 논의 상대 상담센터 이용 의사 상담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기대 서비스 상담주제
정신건강실태	성(性)관련(성희롱, 성추행, 성적자기결정권 등) 알코올 관련 인터넷 관련(스마트 폰 포함) 불안 우울 자살 기타(흡연)

3. 자료처리

모든 자료는 SPSS 24.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전산 처리 하였다. 분석에 각 문항의 영역별, 성별별, 학년별,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회수된 설문지 중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2,076명의 설문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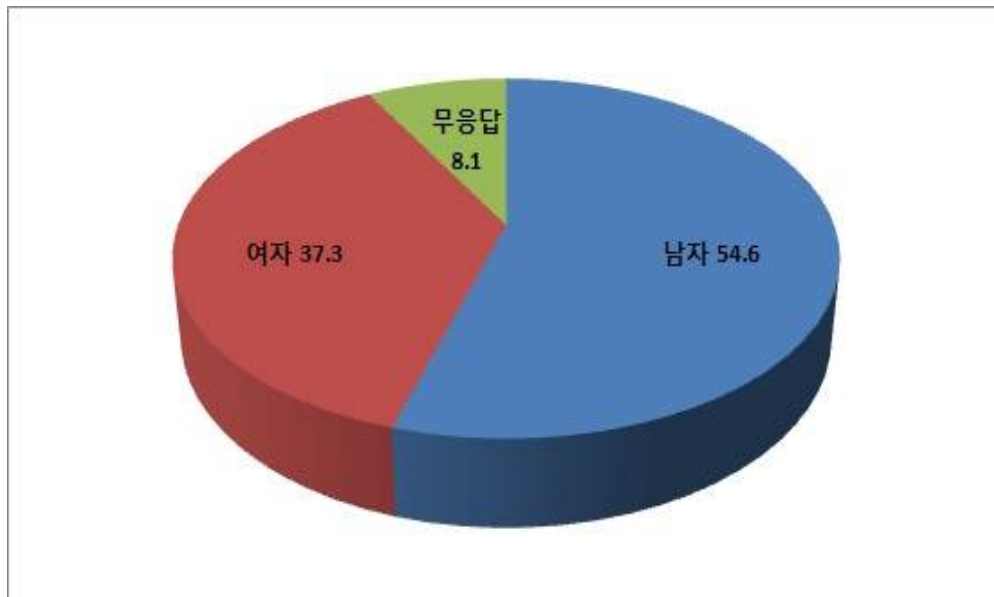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일반적 사항

1) 개인적 사항

(1) 인원 및 성별

전체 응답자 총 2,076명 가운데, 남학생 1,134명(54.6%), 여학생 774명(37.3%), 무응답 168명(8.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응답자 약 430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아래 <그림 1> 참고). 단대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대는 남학생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문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인문대 중에서도 어문학 관련 학과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특성이 있다. 단과대별 성별분포와 학과별 성별분포는 각각 아래 <표 4>, <표 5>와 같다.



<그림 1> 신입생 성별 분포(%)

<표 4> 단과대별 성별분포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무응답	전체
	남자	여자		
인문대학	96 4.6%	143 6.9%	14 0.7%	253 12.2%
자연과학대학	31 1.5%	22 1.1%	6 0.3%	59 2.8%
법과대학	21 1.0%	26 1.3%	1 0.0%	48 2.3%
사회과학대학	104 5.0%	122 5.9%	25 1.2%	251 12.1%
경제통상대학	60 2.9%	57 2.7%	7 0.3%	124 6.0%
경영대학	207 10.0%	119 5.7%	13 0.6%	339 16.3%
공과대학	241 11.6%	124 6.0%	26 1.3%	391 18.8%
IT대학	338 16.3%	146 7.0%	67 3.2%	551 26.5%
예술창작학부	7 0.3%	6 0.3%	3 0.1%	16 0.8%
스포츠학부	29 1.4%	9 0.4%	4 0.2%	42 2.0%
무응답	0 0.0%	0 0.0%	2 0.1%	2 0.1%
전체	1,134 54.6%	774 37.3%	168 8.1%	2,076 100.0%

<표 5> 학과별 성별분포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무응답	전체
	남자	여자		
기독교학과	9 0.4%	7 0.3%	1 0.1%	17 0.8%
국어국문학과	13 0.6%	23 1.1%	0 0.0%	36 1.7%
영어영문학과	3 0.1%	6 0.3%	2 0.1%	11 0.5%
독어독문학과	7 0.3%	23 1.1%	2 0.1%	32 1.5%
불어불문학과	6 0.3%	23 1.1%	5 0.2%	34 1.6%
중어중문학과	11 0.5%	10 0.5%	1 0.1%	22 1.1%
일어일본학과	13 0.6%	27 1.3%	2 0.1%	42 2.0%
철학과	17 0.8%	9 0.4%	0 0.0%	26 1.2%
사학과	18	15	1	34

	0.9%	0.7%	0.1%	1.7%
수학과	18	13	5	36
	0.9%	0.6%	0.2%	1.7%
의생명시스템학부	13	9	1	23
	0.6%	0.4%	0.1%	1.1%
법학과	19	23	0	42
	0.9%	1.1%	0.0%	2.0%
국제법무학과	2	3	1	6
	0.1%	0.1%	0.1%	0.3%
사회복지학부	14	34	6	54
	0.7%	1.6%	0.3%	2.6%
행정학부	35	26	12	73
	1.7%	1.3%	0.6%	3.6%
정치외교학과	22	16	3	41
	1.1%	0.8%	0.1%	2.0%
정보사회학과	14	9	0	23
	0.7%	0.4%	0.0%	1.1%
언론홍보학과	14	17	1	32
	0.7%	0.8%	0.1%	1.6%
평생교육학과	4	19	4	27
	0.2%	0.9%	0.2%	1.3%
경제학과	38	19	5	62
	1.8%	0.9%	0.2%	3.0%
글로벌통상학과	22	38	2	62
	1.1%	1.8%	0.1%	3.0%
벤처중소기업학과	36	28	8	72
	1.7%	1.3%	0.4%	3.5%
회계학과	30	23	0	53
	1.4%	1.1%	0.0%	2.6%
벤처경영학과	87	39	2	128
	4.2%	1.9%	0.1%	6.2%
금융학부	37	18	0	55
	1.8%	0.9%	0.0%	2.7%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107	73	8	188
	5.2%	3.5%	0.4%	9.1%
전기공학부	73	9	12	94
	3.5%	0.4%	0.6%	4.5%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61	41	5	107
	2.9%	2.0%	0.2%	5.1%
컴퓨터학부	51	24	13	88
	2.5%	1.2%	0.6%	4.3%
전자정보공학부	160	55	27	242
	7.7%	2.6%	1.3%	11.6%
글로벌미디어학부	29	40	22	91
	1.4%	1.9%	1.1%	4.4%
소프트웨어학부	61	16	1	78
	2.9%	0.8%	0.1%	3.8%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37	11	4	52
	1.8%	0.5%	0.2%	2.5%
영화예술전공	7	6	3	16
	0.3%	0.3%	0.1%	0.7%
스포츠학부	29	9	4	42
	1.4%	0.4%	0.2%	2.0%
무응답	0	0	35	35
	0.0%	0.0%	1.7%	1.7%

	1,117	761	198	2,076
전체	52.9%	46.4%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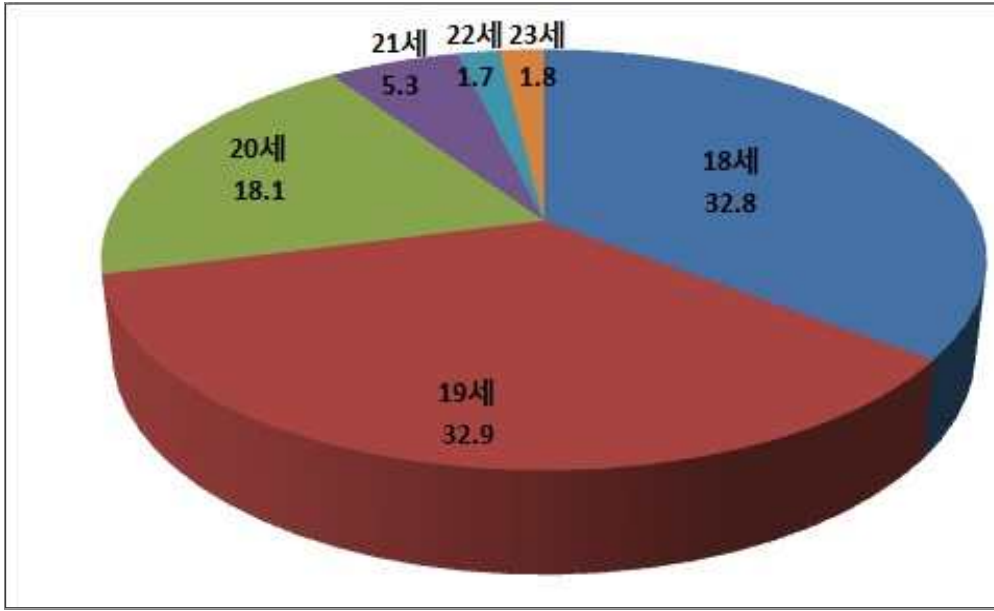
(2) 나이

응답하지 않은 93명을 제외한 응답자 1,983명 중 대학생들의 나이는 만 19세가 683명(32.9%)와 만 18세가 680명(32.8%)로 가장 많았고, 만 20세가 376명(18.1%), 만21세가 109명(5.3%) 등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의 연령은 만 17세부터 29세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연령 분포는 아래 <표 6>과 <그림 2>와 같다. 단과대별 연령분포는 <표 7>과 같다.

<표 6> 신입생 연령분포

(N=2,076, 단위: 명)

구 분(연령)	인 원(명)
17	8 0.4%
18	680 32.8%
19	683 32.9%
20	376 18.1%
21	109 5.3%
22	36 1.7%
23	37 1.8%
24	20 1.0%
25	20 1.0%
26	7 0.3%
27	5 0.2%
29	2 0.1%
결 측	93 4.5%
전 체	2,076 100.0%



<그림 2> 신입생 연령분포(%)

<표 7> 단과대별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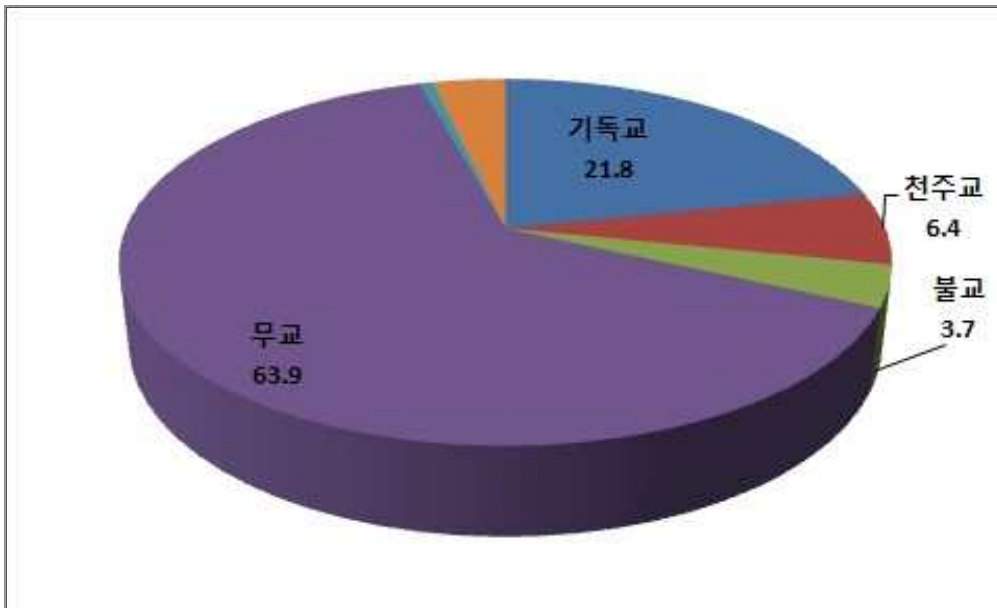
(N=2,076, 단위: 명)

구분	만 17세	만 18세	만 19세	만 20세	만 21세	만 22세	만 23세	만 24세	만 25세	만 26세	만 27세	만 28세	만 29세	무 응답	전체
인문 대학	2 0.1%	102 4.9%	86 4.1%	43 2.1%	13 0.6%	1 0.1%	2 0.1%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3 0.1%	253 12.2%
자연 과학 대학	0 0.0%	21 1.0%	18 0.9%	10 0.5%	3 0.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0.3%	59 2.8%
법과 대학	0 0.0%	23 1.1%	12 0.6%	5 0.2%	5 0.2%	0 0.0%	2 0.1%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48 2.3%
사회 과학 대학	1 0.1%	99 4.8%	85 4.1%	38 1.8%	9 0.4%	2 0.1%	5 0.2%	1 0.1%	0 0.0%	1 0.1%	0 0.0%	0 0.0%	0 0.0%	10 0.5%	251 12.1%
경제 통상 대학	1 0.1%	35 1.7%	39 1.9%	22 1.1%	7 0.3%	1 0.1%	4 0.2%	1 0.0%	1 0.1%	0 0.0%	0 0.0%	0 0.0%	0 0.0%	13 0.6%	124 6.0%
경영 대학	1 0.1%	85 4.1%	90 4.3%	49 2.4%	23 1.1%	10 0.5%	9 0.4%	10 0.5%	13 0.6%	5 0.2%	5 0.2%	0 0.0%	2 0.1%	37 1.8%	339 16.3%
공과 대학	1 0.1%	113 5.4%	126 6.1%	85 4.1%	26 1.3%	11 0.5%	12 0.6%	6 0.3%	3 0.2%	1 0.1%	0 0.0%	0 0.0%	0 0.0%	7 0.3%	391 18.9%
IT 대학	2 0.1%	182 8.8%	205 9.9%	112 5.4%	21 1.0%	10 0.5%	3 0.1%	1 0.1%	2 0.1%	0 0.0%	0 0.0%	0 0.0%	0 0.0%	13 0.6%	551 26.6%
예술 창작 학부	0 0.0%	2 0.1%	6 0.3%	5 0.2%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16 0.8%

스포츠	0	17	16	7	1	1	0	0	0	0	0	0	0	0	42
학부	0.0%	0.8%	0.5%	0.2%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1.6%
결측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전체	8	679	683	376	109	36	37	20	20	7	5	0	2	94	2,076
	0.4%	32.8%	32.9%	18.1%	5.3%	1.7%	1.8%	1.0%	1.0%	0.3%	0.2%	0.0%	0.1%	4.5%	100%

(3) 종교

전체 학생들의 종교로는 무교 1,325(63.9%), 기독교 453명(21.8%), 천주교 133명(6.4%), 불교 76명(3.7%), 기타 13명(0.6%)이었다. 조사결과, 신입생의 절반 이상은 무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종교분포는 <그림 3>와 같고, 단과대학별로는 아래 <표 8>과 같다.



<그림 3> 신입생 종교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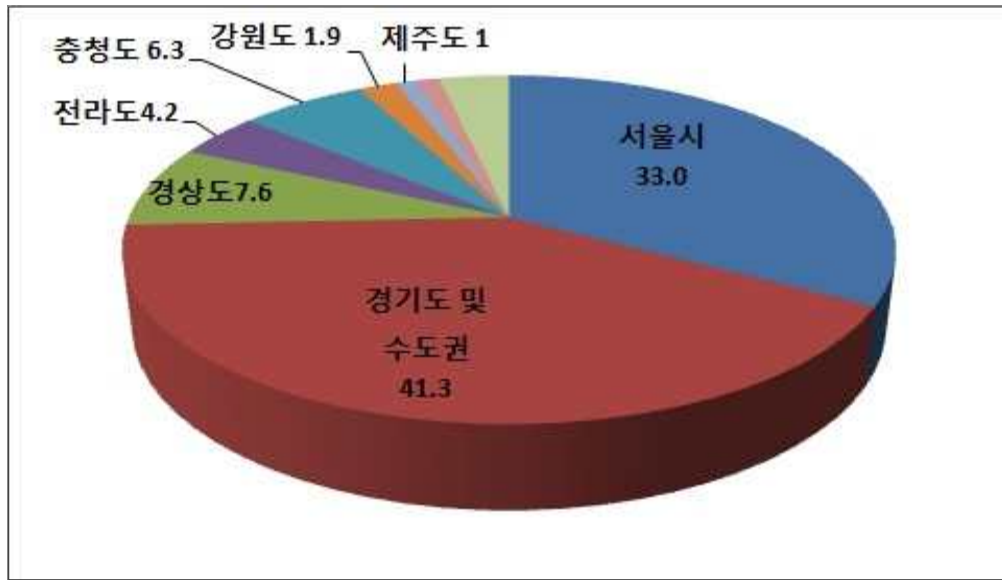
<표 8> 단과대별 종교분포

(N=2,076, 단위: 명)

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무응답	전체
인문대학	66 3.2%	24 1.2%	13 0.6%	145 7.0%	2 0.1%	3 0.1%	253 12.2%
자연과학대학	9 0.4%	3 0.1%	2 0.1%	40 1.9%	1 0.1%	4 0.2%	59 2.8%
법과대학	12 0.6%	7 0.3%	0 0.0%	29 1.4%	0 0.0%	0 0.0%	48 2.3%
사회과학대학	68 3.3%	17 0.8%	12 0.6%	148 7.1%	3 0.1%	3 0.1%	251 12.1%
경제통상대학	34 1.6%	8 0.4%	4 0.2%	68 3.3%	1 0.1%	9 0.4%	124 6.0%
경영대학	54 2.6%	15 0.7%	16 0.8%	216 10.4%	1 0.1%	37 1.8%	339 16.4%
공과대학	85 4.1%	25 1.2%	15 0.7%	257 12.4%	1 0.1%	8 0.4%	391 18.9%
IT대학	114 5.5%	31 1.5%	14 0.7%	379 18.3%	4 0.2%	9 0.4%	551 26.5%
예술창작학부	4 0.2%	0 0.0%	0 0.0%	12 0.6%	0 0.0%	0 0.0%	16 0.8%
스포츠학부	7 0.3%	3 0.1%	0 0.0%	31 1.5%	0 0.0%	1 0.1%	42 2.0%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2 0.1%
전체	453 21.8%	133 6.4%	76 3.7%	1,325 63.9%	13 0.6%	76 3.7%	2,076 100.0%

(4) 주성장지역

본교 신입생들의 주성장지역은 경기도 및 수도권이 856명(41.3%), 서울시 685명(33.0%), 경상도 158명(7.6%), 충청도 132명(6.3%), 전라도 87명(4.2%), 강원도 39명(1.9%), 제주도 지역 2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서울시와 경기도 및 수도권에서 성장한 신입생들이 전체의 74%정도를 차지하여 신입생의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신입생의 주성장지는 <그림 4>과 같고, 단과대별 주성장지는 <표 9>와 같다.



<그림 4> 신입생 주성장지(%)

<표 9> 단과대별 주성장지

(N=2,076, 단위: 명)

구분	서울시	경기도 및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기타	무응답	전체
인문대학	92 4.4%	106 5.1%	16 0.8%	12 0.6%	15 0.7%	1 0.0%	2 0.1%	5 0.2%	4 0.2%	253 12.1%
자연과학 대학	17 0.8%	23 1.1%	5 0.2%	2 0.1%	4 0.2%	1 0.0%	2 0.1%	1 0.0%	4 0.2%	59 2.8%
법과대학	20 1.0%	19 0.9%	2 0.1%	1 0.0%	3 0.1%	2 0.1%	0 0.0%	1 0.0%	0 0.0%	48 2.3%
사회과학 대학	69 3.3%	115 5.5%	13 0.6%	16 0.8%	17 0.8%	9 0.4%	5 0.2%	5 0.2%	2 0.1%	251 12.1%
경제통상 대학	39 1.9%	49 2.4%	6 0.3%	5 0.2%	12 0.6%	1 0.0%	2 0.1%	2 0.1%	8 0.4%	124 6.0%
경영대학	113 5.4%	121 5.8%	27 1.3%	14 0.7%	11 0.5%	12 0.6%	3 0.1%	2 0.1%	36 1.7%	339 16.3%
공과대학	137 6.6%	178 8.6%	31 1.5%	17 0.8%	18 0.9%	3 0.1%	1 0.0%	0 0.0%	6 0.3%	391 18.8%
IT대학	175 8.4%	225 10.8%	49 2.4%	18 0.9%	51 2.5%	10 0.5%	6 0.3%	9 0.4%	8 0.4%	551 26.5%
예술창작 학부	10 0.5%	4 0.2%	1 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 0.8%
스포츠 학부	13 0.6%	16 0.8%	8 0.4%	1 0.0%	1 0.0%	0 0.0%	0 0.0%	1 0.0%	2 0.1%	42 2.0%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2 0.1%
전체	685 33.0%	856 41.3%	158 7.6%	87 4.2%	132 6.3%	39 1.9%	21 1.0%	26 1.2%	72 3.5%	2,076 100.0%

(5) 입시분류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입시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한 학생이 1,292명(62.2%), 재수를 한 학생이 520명(25.0%), 삼수를 한 학생이 122명(5.9%) 사수 이상 학생이 20명(1.0%), 기타 5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입시분류는 다음 <그림 5>와 같고, 단과대별로는 아래 <표 10>과 같다.



<그림 5> 신입생 입시분류(%)

<표 10> 단과대별 입시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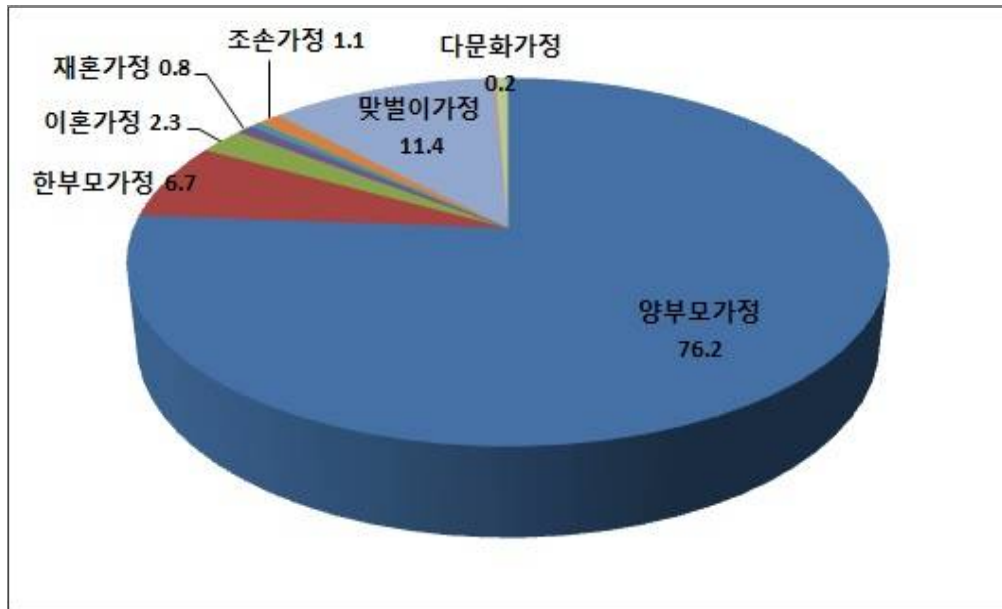
(N=2,076, 단위: 명)

구분	입시분류					무응답	전체
	바로 진학	재수	삼수	사수 이상	기타		
인문 대학	170 8.2%	58 2.8%	9 0.4%	1 0.0%	13 0.6%	2 0.1%	253 12.2%
자연 과학 대학	35 1.7%	15 0.7%	4 0.2%	0 0.0%	1 0.0%	4 0.2%	59 2.8%
법과 대학	34 1.6%	6 0.3%	4 0.2%	1 0.0%	3 0.1%	0 0.0%	48 2.3%
사회 과학 대학	177 8.5%	48 2.3%	12 0.6%	3 0.1%	7 0.3%	4 0.2%	251 12.1%
경제 통상 대학	72 3.5%	29 1.4%	9 0.4%	2 0.1%	4 0.2%	8 0.4%	124 6.0%
경영 대학	178 8.6%	85 4.1%	26 1.3%	4 0.2%	8 0.4%	38 1.8%	339 16.3%

공과 대학	237 11.4%	106 5.1%	34 1.6%	4 0.2%	5 0.2%	5 0.2%	391 18.8%
IT대학	349 16.8%	159 7.7%	21 1.0%	4 0.2%	11 0.5%	7 0.3%	551 26.5%
예술 창작 학부	9 0.4%	4 0.2%	2 0.1%	1 0.0%	0 0.0%	0 0.0%	16 0.8%
스포츠 학부	31 1.5%	10 0.5%	1 0.0%	0 0.0%	0 0.0%	0 0.0%	42 2.0%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2 0.1%
전 체	1,292 62.2%	520 25.0%	122 5.9%	20 1.0%	52 2.5%	70 3.4%	2,076 100.0%

(6) 가족형태

먼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이 가능했다. 전체 응답자 중 양부모가족이 1,670명 (76.2%), 맞벌이가정이 251명(11.4%), 한부모 가정이 148명(6.7%), 이혼가정이 51명(2.3%), 조손 가정이 25명(1.1%), 재혼가정이 18명(0.8%) 등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의 가족형태는 <그림 6>와 같으며, 단과대별로는 아래 <표 11>과 같다.



<그림 6> 신입생 가족형태(%)

<표 11> 단과대별 가족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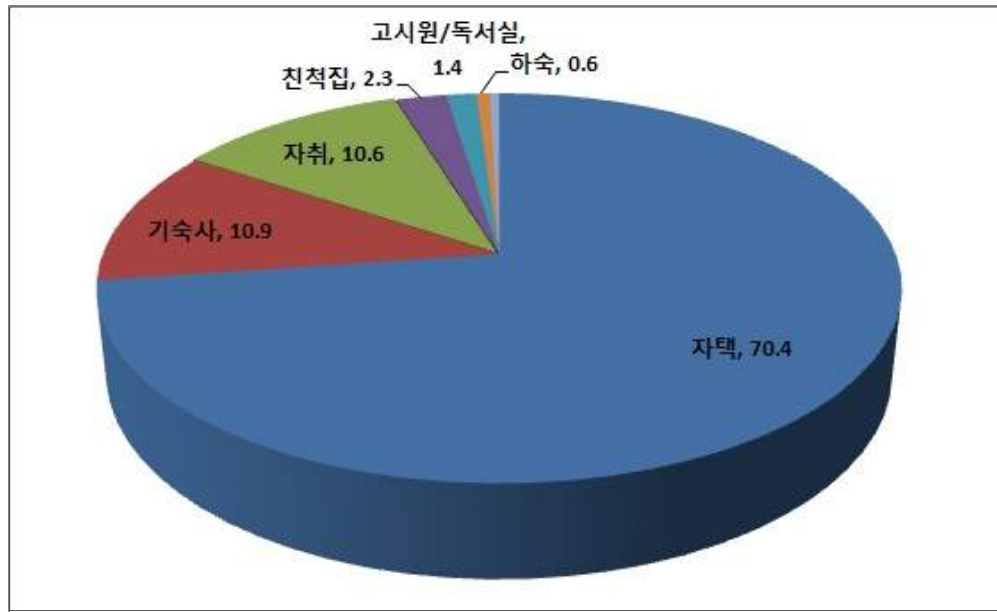
(N=2,193, 단위: 명)

구분	양부모	한부모	이혼	재혼	혼자	조손	맞벌이	다문화	기타	전체
인문 대학	205 9.3%	18 0.8%	10 0.5%	4 0.2%	2 0.1%	10 0.5%	34 1.6%	2 0.1%	1 0.0%	286 13.0%
자연 과학 대학	46 2.1%	3 0.1%	0 0.0%	1 0.0%	0 0.0%	0 0.0%	11 0.5%	0 0.0%	0 0.0%	61 2.8%
법과 대학	42 1.9%	2 0.1%	3 0.1%	1 0.0%	0 0.0%	0 0.0%	3 0.1%	0 0.0%	0 0.0%	51 2.3%
사회 과학 대학	214 9.8%	14 0.6%	8 0.4%	1 0.0%	1 0.0%	3 0.1%	29 1.3%	1 0.0%	3 0.1%	274 12.5%
경제 통상 대학	92 4.2%	16 0.7%	4 0.2%	0 0.0%	0 0.0%	0 0.0%	13 0.6%	1 0.0%	0 0.0%	126 5.7%
경영 대학	254 11.6%	21 1.0%	7 0.3%	4 0.2%	4 0.2%	4 0.2%	25 1.1%	0 0.0%	2 0.1%	321 14.6%
공과 대학	317 14.5%	37 1.7%	9 0.4%	0 0.0%	0 0.0%	3 0.1%	59 2.7%	0 0.0%	4 0.2%	429 19.6%
IT 대학	455 20.7%	30 1.4%	10 0.5%	7 0.3%	4 0.2%	5 0.2%	71 3.2%	0 0.0%	3 0.1%	585 26.7%
예술 창작 학부	12 0.5%	2 0.1%	0 0.0%	0 0.0%	0 0.0%	0 0.0%	2 0.1%	0 0.0%	0 0.0%	16 0.7%
스포츠 학부	33 1.5%	5 0.2%	0 0.0%	0 0.0%	1 0.0%	0 0.0%	4 0.2%	0 0.0%	1 0.0%	44 2.0%
전체	1,670 76.2%	148 6.7%	51 2.3%	18 0.8%	12 0.5%	25 1.1%	251 11.4%	4 0.2%	14 0.6%	2,193 100.0%

*다중응답

(7) 주거상태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주거상태를 살펴본 결과 자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61명(70.4%)이고, 기숙사가 227명(10.9%), 자취가 220명(10.6%), 친척집이 48명(2.3%), 고시원/독서실이 29명(1.4%)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사된 신입생들의 주성장지역이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방이 약 74%로 나타나, 자택에서 통학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입생 주거상태는 <그림 7>과 같으며, 단과대별 주거상태는 <표 12>와 같다.



<그림 7> 신입생 주거상태

<표 12> 단과대별 주거상태

(N=2,076, 단위: 명)

구분	자택	친척집	자취	하숙	기숙사	고시원/ 독서실	기타	무응답	전체
인문대학	192 9.2%	10 0.5%	24 1.2%	2 0.1%	19 0.9%	3 0.1%	1 0.0%	2 0.1%	253 12.2%
자연과학 대학	33 1.6%	3 0.1%	6 0.3%	0 0.0%	10 0.5%	3 0.1%	0 0.0%	4 0.2%	59 2.8%
법과대학	36 1.7%	2 0.1%	5 0.2%	0 0.0%	5 0.2%	0 0.0%	0 0.0%	0 0.0%	48 2.3%
사회과학 대학	173 8.3%	7 0.3%	32 1.5%	1 0.0%	33 1.6%	1 0.0%	2 0.1%	2 0.1%	251 12.1%
경제통상 대학	85 4.1%	1 0.0%	9 0.4%	2 0.1%	16 0.8%	1 0.0%	0 0.0%	10 0.5%	124 6.0%
경영대학	220 10.6%	2 0.1%	42 2.0%	3 0.1%	29 1.4%	6 0.3%	1 0.0%	36 1.7%	339 16.3%
공과대학	298 14.4%	3 0.1%	35 1.7%	3 0.1%	40 1.9%	4 0.2%	3 0.1%	5 0.2%	391 18.8%
IT대학	383 18.4%	18 0.9%	59 2.8%	2 0.1%	69 3.3%	10 0.5%	2 0.1%	8 0.4%	551 26.5%
예술창작 학부	12 0.6%	1 0.0%	1 0.0%	0 0.0%	1 0.0%	1 0.0%	0 0.0%	0 0.0%	16 0.8%
스포츠 학부	29 1.4%	1 0.0%	7 0.3%	0 0.0%	5 0.2%	0 0.0%	0 0.0%	0 0.0%	42 2.0%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 0.1%	2 0.1%
전체	1,461 70.4%	48 2.3%	220 10.6%	13 0.6%	227 10.9%	29 1.4%	9 0.4%	69 3.3%	2,076 100.0%

2) 대학 입학 과정 및 대학생활

(1) 사교육 형태

신입생들의 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 강의 548명(23.9%), 두 과목 이상 학원의 대형 강의 488명(21.3%),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음이 310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 과목 개인과외가 274명(12.0%), 학원의 소그룹 종합반이 256명(11.2%)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전체 신입생 사교육 형태는 <그림 8>과 같고, 단과대별 신입생 사교육 형태는 <표 13>과 같다.



<그림 8> 신입생 사교육 형태(%)

<표 13> 단과대별 사교육 형태

(N=2,29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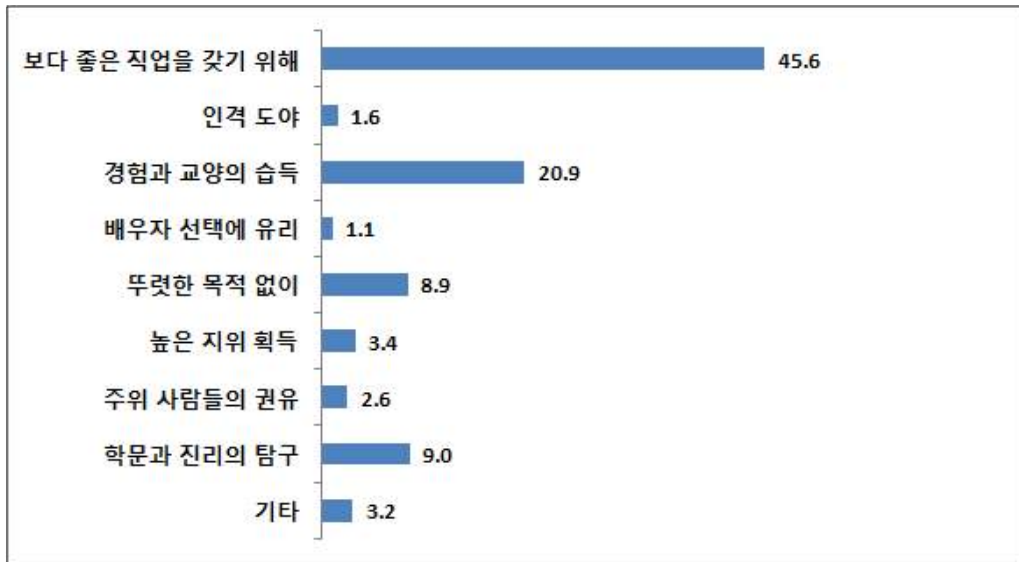
구분	한과목 개인과외	두과목 이상 개인과외	한과목 학원의 대형강의	두과목 이상 학원 대형강의	학원의 소그룹 종합반	인터넷 강의	과외나 학원 다니지 않음	무응답	전체
인문 대학	33 1.4%	31 1.4%	26 1.1%	36 1.6%	34 1.5%	73 3.2%	49 2.1%	2 0.1%	284 12.4%
자연 과학 대학	10 0.4%	5 0.2%	5 0.2%	13 0.6%	4 0.2%	11 0.5%	13 0.6%	4 0.2%	65 2.8%
법과 대학	8 0.3%	4 0.2%	7 0.3%	13 0.6%	5 0.2%	12 0.5%	9 0.4%	0 0.0%	58 2.5%
사회 과학 대학	35 1.5%	10 0.4%	12 0.5%	47 2.1%	26 1.1%	76 3.3%	62 2.7%	3 0.1%	271 11.8%

경제 통상 대학	19 0.8%	9 0.4%	7 0.3%	30 1.3%	14 0.6%	22 1.0%	20 0.9%	11 0.5%	132 5.8%
경영 대학	39 1.7%	31 1.4%	20 0.9%	72 3.1%	42 1.8%	81 3.5%	40 1.7%	38 1.7%	363 15.9%
공과 대학	44 1.9%	39 1.7%	34 1.5%	107 4.7%	62 2.7%	105 4.6%	40 1.7%	5 0.2%	436 19.0%
IT 대학	77 3.4%	41 1.8%	49 2.1%	158 6.9%	60 2.6%	159 6.9%	61 2.7%	8 0.3%	613 26.8%
예술 창작 학부	3 0.1%	0 0.0%	3 0.1%	1 0.0%	4 0.2%	1 0.0%	5 0.2%	0 0.0%	17 0.7%
스포츠 학부	6 0.3%	3 0.1%	2 0.1%	11 0.5%	5 0.2%	8 0.3%	11 0.5%	0 0.0%	46 2.0%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0.2%	5 0.2%
전체	274 12.0%	173 7.6%	165 7.2%	488 21.3%	256 11.2%	548 23.9%	310 13.5%	76 3.3%	2,290 100.0%

*다중응답

(2) 대학진학 목적

신입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라는 의견이 975명(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험과 교양의 습득을 위해서’ 448명(20.9%), ‘학문과 진리의 탐구’가 192명(9.0%), ‘뚜렷한 목적 없이’ 라는 의견도 190명(8.9%)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및 ‘대학진학이 당연시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신입생들의 대학진학 목적은 <그림 9>와 같고, 단과대별 신입생의 대학진학 목적은 <표 14>와 같다.



<그림 9> 신입생 대학진학 목적(%)

<표 14> 단과대별 대학진학 목적

(N=2,139, 단위: 명)

구분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인격 도야	경험과 교양의 습득	배우자 선택에 유리	뚜렷한 목적 없이	높은 지위 획득	주위 사람들의 권유	학문과 진리의 탐구	기타	무응답	전체
인문 대학	93 4.3%	0 0.0%	68 3.2%	1 0.1%	25 1.2%	11 0.5%	5 0.2%	44 2.1%	15 0.7%	7 0.3%	269 12.6%
자연 과학 대학	30 1.4%	1 0.1%	8 0.4%	0 0.0%	6 0.3%	1 0.1%	3 0.1%	8 0.4%	4 0.2%	0 0.0%	61 2.9%
법과 대학	28 1.3%	1 0.0%	8 0.4%	0 0.0%	2 0.1%	1 0.1%	1 0.1%	5 0.2%	4 0.2%	0 0.0%	50 2.3%
사회 과학 대학	93 4.3%	11 0.5%	75 3.5%	5 0.2%	23 1.1%	6 0.3%	16 0.7%	23 1.1%	4 0.2%	5 0.2%	261 12.2%
경제 통상 대학	55 2.6%	2 0.1%	29 1.4%	3 0.1%	11 0.5%	7 0.3%	1 0.1%	11 0.5%	0 0.0%	9 0.4%	128 6.0%
경영 대학	150 7.0%	8 0.4%	70 3.3%	1 0.1%	37 1.7%	11 0.5%	10 0.5%	13 0.6%	7 0.3%	38 1.8%	345 16.1%
공과 대학	224 10.5%	3 0.1%	55 2.6%	7 0.3%	39 1.8%	15 0.7%	8 0.4%	27 1.3%	14 0.7%	8 0.4%	400 18.7%
IT 대학	280 13.1%	7 0.3%	116 5.4%	6 0.3%	43 2.0%	19 0.9%	8 0.4%	54 2.5%	19 0.9%	10 0.5%	562 26.3%
예술	2	2	8	0	0	0	1	2	1	0	16

창작 학부	0.1%	0.1%	0.4%	0.0%	0.0%	0.0%	0.1%	0.1%	0.1%	0.0%	0.8%
스포츠 학부	20	0	11	0	4	2	2	5	0	1	45
무응답	0.9%	0.0%	0.5%	0.0%	0.2%	0.1%	0.1%	0.2%	0.0%	0.0%	2.1%
무응답	0	0	0	0	0	0	0	0	0	2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전체	975	35	448	23	190	73	55	192	68	80	2,139
	45.6%	1.6%	20.9%	1.1%	8.9%	3.4%	2.6%	9.0%	3.2%	3.7%	100.0%

*다중응답

(3)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

신입생들에게 본교 입학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990명(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의 명성’이 129명(6.0%), ‘취직률과 취업전망’이 126명(5.9%), ‘미래비전과 맞아서’가 123명(5.7%), ‘적성이 맞아서’가 112명(5.2%), ‘흥미가 있어서’가 111명(5.2%)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3.9%) 의견으로는 접근성의 편리함, 서울 소재 학교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본교 입학이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275명(12.8%)으로 상당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입시홍보 및 본교 신입생의 대학 입학 및 학교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신입생들의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그림 10>과 같고, 단과대별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표 15>와 같다.



<그림 10> 신입생의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

<표 15> 단과대별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

(N=2,149, 단위: 명)

구분	합격할 가능성	학교의 명성	기독교 학교	적성이 맞아서	흥미가 있어	취직률, 취업 전망	미래 비전과 맞아서	주변 사람 (부모 님 등) 권유	외국 유학 등 특전이 있어서	뚜렷한 이유가 없다	기타	무응답	전체
인문 대학	128 6.0%	14 0.7%	8 0.4%	10 0.5%	16 0.7%	0 0.0%	16 0.7%	7 0.3%	3 0.1%	39 1.8%	17 0.8%	5 0.2%	263 12.2%
자연 과학 대학	29 1.3%	4 0.2%	2 0.1%	4 0.2%	5 0.2%	0 0.0%	3 0.1%	5 0.2%	0 0.0%	10 0.5%	0 0.0%	0 0.0%	62 2.9%
법과 대학	25 1.2%	2 0.1%	2 0.1%	2 0.1%	2 0.1%	1 0.0%	1 0.0%	3 0.1%	1 0.0%	6 0.3%	5 0.2%	0 0.0%	50 2.3%
사회 과학 대학	127 5.9%	19 0.9%	7 0.3%	16 0.7%	12 0.6%	6 0.3%	19 0.9%	12 0.6%	0 0.0%	33 1.5%	9 0.4%	5 0.2%	265 12.3%
경제 통상 대학	62 2.9%	5 0.2%	2 0.1%	2 0.1%	3 0.1%	4 0.2%	8 0.4%	5 0.2%	0 0.0%	20 0.9%	6 0.3%	9 0.4%	126 5.9%
경영 대학	163 7.6%	13 0.6%	3 0.1%	15 0.7%	11 0.5%	14 0.7%	17 0.8%	17 0.8%	0 0.0%	47 2.2%	8 0.4%	37 1.7%	345 16.1%
공과 대학	209 9.7%	23 1.1%	8 0.4%	15 0.7%	13 0.6%	30 1.4%	16 0.7%	10 0.5%	1 0.0%	48 2.2%	18 0.8%	7 0.3%	398 18.5%
IT 대학	239 11.1%	36 1.7%	10 0.5%	36 1.7%	38 1.8%	68 3.2%	38 1.8%	12 0.6%	2 0.1%	65 3.0%	17 0.8%	9 0.4%	570 26.5%
예술 창작 학부	2 0.1%	1 0.0%	0 0.0%	4 0.2%	3 0.1%	1 0.0%	4 0.2%	1 0.0%	0 0.0%	1 0.1%	2 0.1%	0 0.0%	19 0.9%
스포츠 학부	6 0.3%	12 0.6%	2 0.1%	8 0.4%	8 0.4%	2 0.1%	1 0.05%	1 0.0%	1 0.0%	6 0.3%	2 0.1%	0 0.0%	49 2.2%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2 0.1%
전체	990 46.1%	129 6.0%	44 2.0%	112 5.2%	111 5.2%	126 5.9%	123 5.7%	73 3.4%	8 0.4%	275 12.8%	84 3.9%	74 3.4%	2,149 100.0%

*다중응답

(4)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성에 맞아서’가 399명(19.2%), 학문적 흥미 374명(18.0%), 합격할 가능성 363명(17.4%), 취직률과 취업전망이 351명(16.9%)로 나타났다. 한편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신입생들의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그림 11>과 같고, 단과대별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표 16>과 같다.



<그림 11> 신입생의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표 16> 단과대별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

(N=2,084, 단위: 명)

구분	합격할 가능성	학교의 명성	적성이 맞아서	학문적 흥미	취직률, 취업 전망	미래 비전과 맞아서	주변 사람 (부모님 등) 권유	어릴 때 부터 원해서	두려한 이유가 없다	기타	무응답	전체
인문 대학	57 2.7%	1 0.05%	47 2.3%	89 4.3%	6 0.3%	36 1.7%	1 0.05%	8 0.4%	15 0.7%	3 0.1%	0 0.0%	263 12.6%
자연 과학 대학	5 0.2%	1 0.05%	21 1.0%	19 0.9%	2 0.1%	6 0.3%	0 0.0%	3 0.1%	2 0.1%	0 0.0%	0 0.0%	59 2.8%
법과 대학	7 0.3%	0 0.0%	8 0.4%	15 0.7%	3 0.1%	8 0.4%	1 0.05%	2 0.1%	8 0.4%	0 0.0%	0 0.0%	52 2.5%
사회 과학 대학	45 2.2%	2 0.1%	62 3.0%	48 2.3%	18 0.9%	49 2.4%	6 0.3%	5 0.2%	16 0.8%	2 0.1%	0 0.0%	253 12.1%
경제 통상 대학	23 1.1%	2 0.1%	24 1.2%	19 0.9%	16 0.8%	11 0.5%	4 0.2%	3 0.1%	15 0.7%	1 0.05%	0 0.0%	118 5.7%

경영 대학	58 2.8%	6 0.3%	44 2.1%	33 1.6%	74 3.6%	39 1.9%	11 0.5%	5 0.2%	32 1.5%	8 0.4%	0 0.0%	310 14.9%
공과 대학	104 5.0%	6 0.3%	62 3.0%	62 3.0%	74 3.6%	37 1.8%	8 0.4%	5 0.2%	37 1.8%	3 0.1%	0 0.0%	398 19.1%
IT 대학	59 2.8%	22 1.1%	99 4.8%	79 3.8%	157 7.5%	67 3.2%	8 0.4%	13 0.6%	35 1.7%	13 0.6%	0 0.0%	552 26.5%
예술 창작 학부	1 0.05%	1 0.05%	8 0.4%	4 0.2%	0 0.0%	3 0.1%	0 0.0%	1 0.05%	0 0.0%	0 0.0%	0 0.0%	18 0.9%
스포츠 학부	3 0.1%	3 0.1%	22 1.1%	6 0.3%	1 0.05%	8 0.4%	1 0.05%	4 0.2%	2 0.1%	0 0.0%	0 0.0%	50 2.4%
무응답	1 0.0%	0 0.0%	2 0.1%	0 0.0%	0 0.0%	0 0.0%	0 0.0%	0 0.0%	5 0.2%	0 0.0%	2 0.1%	8 0.4%
전체	363 17.4%	44 2.1%	399 19.2%	374 18.0%	351 16.9%	264 12.7%	40 1.9%	49 2.4%	167 8.0%	30 1.4%	2 0.1%	2,084 100.0%

*다중응답

(5)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이성 및 대인관계가 595명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공부가 457명(19.3%),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이 408명 (17.3%), 대학 내 활동이 263명(11.1%)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인격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취직준비 등도 약 8%로 나타났다. 한편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신입생들의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그림 12>와 같고, 단과대별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표 17>과 같다.



<그림 12> 신입생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표 17> 단과대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N=2,362, 단위: 명)

구분	전공 공부	이성 및 대인 관계	자격증 취득	취직 준비	대학 내 활동	영어 공부	취미 등 다양한 활동	등록금, 생활비 마련 경제 활동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 공부	무응답	전체
인문 대학	10 0.4%	18 0.8%	1 0.0%	1 0.0%	10 0.4%	1 0.0%	15 0.6%	1 0.0%	3 0.1%	1 0.0%	61 2.6%
자연 과학 대학	16 0.7%	9 0.4%	1 0.0%	4 0.2%	9 0.4%	2 0.1%	8 0.3%	0 0.0%	4 0.2%	0 0.0%	53 2.2%
법과 대학	63 2.7%	56 2.4%	5 0.2%	26 1.1%	45 1.9%	11 0.5%	48 2.0%	12 0.5%	30 1.3%	5 0.2%	301 12.7%
사회 과학 대학	24 1.0%	35 1.5%	6 0.3%	12 0.5%	18 0.8%	6 0.3%	18 0.8%	2 0.1%	7 0.3%	10 0.4%	138 5.8%
경제 통상 대학	60 2.5%	89 3.8%	14 0.6%	35 1.5%	32 1.4%	8 0.3%	50 2.1%	5 0.2%	34 1.4%	38 1.6%	365 15.5%
경영 대학	63 2.7%	140 5.9%	11 0.5%	36 1.5%	59 2.5%	11 0.5%	72 3.0%	10 0.4%	37 1.6%	6 0.3%	445 18.8%
공과 대학	135 5.7%	180 7.6%	13 0.6%	46 1.9%	58 2.5%	12 0.5%	115 4.9%	8 0.3%	37 1.6%	10 0.4%	614 26.0%
IT 대학	10 0.4%	2 0.1%	1 0.0%	0 0.0%	2 0.1%	1 0.0%	5 0.2%	0 0.0%	2 0.1%	0 0.0%	23 1.0%
예술 창작 학부	9 0.4%	12 0.5%	12 0.5%	5 0.2%	2 0.1%	3 0.1%	6 0.3%	4 0.2%	8 0.3%	0 0.0%	61 2.6%
스포츠 학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2 0.1%
무응답	457 19.3%	595 25.2%	70 3.0%	182 7.7%	263 11.1%	66 2.8%	408 17.3%	44 1.9%	200 8.5%	77 3.3%	2,362 100.0%
전체	457 19.3%	595 25.2%	70 3.0%	182 7.7%	263 11.1%	66 2.8%	408 17.3%	44 1.9%	200 8.5%	77 3.3%	2,362 100.0%

*다중응답

(6)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로는 학업문제로 응답한 학생이 573명(2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진로(취업)이 535명(24.0%), 대인관계가 438명(19.7%), 경제문제가 230명(10.3%), 병역문제가 121명(5.4%)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이성관

계나 성격문제가 약 4%로 나타났다. 한편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신입생들의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그림 13>과 같고, 단과대별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표 18>과 같다.



<그림 13> 신입생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표 18> 단과대별 대학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N=2,228, 단위: 명)

구분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이성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병역 문제	성문제	기타	무응답	전체
인문 대학	5 0.2%	5 0.2%	54 2.4%	4 0.2%	36 1.6%	65 2.9%	74 3.3%	4 0.2%	12 0.5%	0 0.0%	10 0.4%	4 0.2%	273 12.3%
자연 과학 대학	2 0.1%	0 0.0%	12 0.5%	4 0.2%	8 0.4%	24 1.1%	11 0.5%	1 0.0%	4 0.2%	0 0.0%	0 0.0%	0 0.0%	66 3.0%
법과 대학	1 0.0%	0 0.0%	15 0.7%	2 0.1%	6 0.3%	8 0.4%	17 0.8%	1 0.0%	2 0.1%	0 0.0%	0 0.0%	0 0.0%	52 2.3%
사회 과학 대학	14 0.6%	1 0.0%	64 2.9%	4 0.2%	28 1.3%	74 3.3%	73 3.3%	2 0.1%	12 0.5%	0 0.0%	2 0.1%	5 0.2%	279 12.5%
경제 통상 대학	9 0.4%	3 0.1%	26 1.2%	6 0.3%	14 0.6%	24 1.1%	35 1.6%	1 0.0%	3 0.1%	0 0.0%	2 0.1%	9 0.4%	132 5.9%
경영 대학	16 0.7%	3 0.1%	65 2.9%	11 0.5%	31 1.4%	70 3.1%	106 4.8%	2 0.1%	17 0.8%	0 0.0%	3 0.1%	37 1.7%	361 16.2%
공과 대학	18 0.8%	5 0.2%	90 4.0%	18 0.8%	42 1.9%	116 5.2%	99 4.4%	2 0.1%	20 0.9%	0 0.0%	5 0.2%	6 0.3%	421 18.9%

IT 대학	20	7	104	40	55	178	95	4	47	2	10	9	571
	0.9%	0.3%	4.7%	1.8%	2.5%	8.0%	4.3%	0.2%	2.1%	0.1%	0.4%	0.4%	25.6%
예술 창작 학부	0	0	4	1	2	1	7	0	2	0	2	0	19
	0.0%	0.0%	0.2%	0.0%	0.1%	0.0%	0.3%	0.0%	0.1%	0.0%	0.1%	0.0%	0.9%
스포츠 학부	2	1	4	2	8	13	18	1	2	0	1	0	52
	0.1%	0.0%	0.2%	0.1%	0.4%	0.6%	0.8%	0.0%	0.1%	0.0%	0.0%	0.0%	2.3%
무응답	0	0	0	0	0	0	0	0	0	0	0	2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전체	87	25	438	92	230	573	535	18	121	2	35	72	2,228
	3.9%	1.1%	19.7%	4.1%	10.3%	25.7%	24.0%	0.8%	5.4%	0.1%	1.6%	3.2%	100.0%

*다중응답

(7)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

신입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은 장학금(경제적 문제)가 953명(44.5%)로 가장 높았고, 진로 및 취업문제가 645명(30.1%)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학생 편의 시설, 및 다양한 교과목 개설 등에 대한 의견이 132명(6.2%)로 나타났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영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0명(4.2%)로 나타났다. 한편,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 전체 신입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은 <그림 14>과 같고, 단과대별로 살펴본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은 <표 19>과 같다.



<그림 14> 신입생이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

<표 19> 단과대별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

(N=2,141, 단위: 명)

구분	장학금 (경제적 문제)	전문적인 심리상담	다양한 교과목 개설	진로 및 취업문제	학생 편의시설 (학생식당, 운동시설)	동아리 활동 지원	기타	무응답	전체
----	--------------------	--------------	------------------	--------------	-------------------------------	--------------	----	-----	----

인문 대학	127 5.9%	13 0.6%	23 1.1%	70 3.3%	16 0.7%	5 0.2%	4 0.2%	8 0.4%	266 12.4%
자연 과학 대학	34 1.6%	2 0.1%	4 0.2%	15 0.7%	3 0.1%	2 0.1%	0 0.0%	0 0.0%	60 2.8%
법과 대학	21 1.0%	1 0.0%	3 0.1%	20 0.9%	2 0.1%	0 0.0%	1 0.0%	0 0.0%	48 2.2%
사회 과학 대학	129 6.0%	17 0.8%	21 1.0%	64 3.0%	19 0.9%	10 0.5%	3 0.1%	5 0.2%	268 12.5%
경제 통상 대학	58 2.7%	3 0.1%	10 0.5%	33 1.5%	11 0.5%	4 0.2%	1 0.0%	9 0.4%	129 6.0%
경영 대학	121 5.7%	11 0.5%	27 1.3%	119 5.6%	12 0.6%	8 0.4%	8 0.4%	40 1.9%	346 16.2%
공과 대학	181 8.5%	11 0.5%	12 0.6%	142 6.6%	25 1.2%	12 0.6%	10 0.5%	6 0.3%	399 18.6%
IT 대학	249 11.6%	32 1.5%	23 1.1%	166 7.8%	38 1.8%	23 1.1%	18 0.8%	10 0.5%	559 26.1%
예술 창작 학부	8 0.4%	0 0.0%	2 0.1%	7 0.3%	2 0.1%	0 0.0%	0 0.0%	0 0.0%	19 0.9%
스포츠 학부	25 1.2%	0 0.0%	3 0.1%	9 0.4%	4 0.2%	2 0.1%	2 0.1%	0 0.0%	45 2.1%
무 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2 0.1%
전체	953 44.5%	90 4.2%	128 6.0%	645 30.1%	132 6.2%	66 3.1%	47 2.2%	80 3.7%	2,141 100.0%

*다중응답

2. 정신건강실태

<표 20> 각 영역별 점수에 대한 특성

영역	점수	구분	해석
성적자기 결정능력	93점 이상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의 성적자기결정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 관계에서도 그런 능력이 발휘되고 계발되기 바랍니다.
	80-92점	노력 요함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성적자기결정능력을 갖추도록 합시다.
	80점 미만	위험수준	당신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위험수준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관계-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	11점 이하	비중독군	음주습관이 양호합니다.
	12점-14점	문제 음주	상습적 과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5점 이상	알코올 사용 장애	집중치료와 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42점 이하	일반사용군	인터넷을 자신의 흥미, 욕구,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43점-53점	잠재적 위험사용군 I	현재 뚜렷한 문제는 없으나 사용시간이 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54점-66점	잠재적 위험사용군 II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요구됩니다.
	67점 이상	고위험사용군	인터넷 사용을 자기조절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중치료와 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안	51점 이하	양호	양호한 수준입니다.
	52점-56점	높음	불안감이 높은 수준입니다.
	57점-61점	상당히 높음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62점 이상	매우 높음	불안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울	15점 이하	정서적으로 양호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양호한 정서 상태입니다.
	16점-24점	경도의 우울	가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5점 이상	우울증	우울증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1) 전체 신입생들의 정신건강의 일반적 특성

(1) 정신건강 각 영역의 일반적 특성

<표 21> 정신건강 각 영역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영역	빈도(무응답 제외)	평균	표준편차
성적자기결정권	2,062	79.73	14.52
음주	2,039	9.00	5.96
인터넷 사용	2,050	39.91	10.15
불안	2,003	23.05	9.22
우울	2,017	14.11	8.90

전체 영역에 대해 전체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적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개인이 성(性)과 관련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적 주체임을 인정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³⁾ 본 보고서에 활용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조사도구를 기준으로 80점 미만은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위험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2,062명의 평균은 79.73, 표준편차는 14.52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교 신입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위험수준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상대방의 결정도 건강하게 수용하는 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에게 성(性)적 문제에 대해 결정을 강요하거나 또는 강요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에 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음주’에 대한 조사도구에서 11점 이하는 ‘비중독군’, 12점에서 14점은 ‘문제음주’, 15점 이상은 ‘알코올 중독 가능’으로 보고 있으며 본교 신입생들 중 응답한 2,039명의 평균은 9.00, 표준편차는 5.96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사도구는 42점 이하는 ‘일반사용군’, 43점에서 53점은 ‘잠재적 위험사용군 I’, 54점에서 66점은 ‘잠재적 위험사용군 II’, 67점 이상은 ‘고위험사용군’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2,050명의 평균은 39.91, 표준편차는 10.15로 나타났다. ‘불안’에 대한 조사도구에서 ‘58점 이하’는 ‘정상’으로 전체 응답자 2,003명의 평균은 23.05, 표준편차는 9.22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조사도구에서 15점 이하는 ‘정서적으로 양호’, 16점에서 24점은 ‘경도의 우울’, 25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2,017명의 평균은 14.11, 표준편차는 8.90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점수에 대한 해석은 <표 21>과 같다.

3)한국여성상담센터(2015), 『성폭력 상담을 위한 이론과 실제』

(2) 성적자기결정능력의 일반적 특성

<표 22> 성적자기결정능력의 일반적 특성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성적자기결정능력 높음 (93점 이상)	197	9.5%
노력 요함 (80-92점)	831	40.0%
위험 수준 (80점 미만)	1,034	49.8%
무응답	14	0.7%
전체	2,076	100.0%

성태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2,062명(무응답 제외) 중 성태도 문항의 총점이 93점 이상으로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학생은 197명(9.5%), 80점-92점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학생이 831명(40.0%)이고, 위험수준에 있다고 추측되는 학생이 1,034명(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입생들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및 성적자기결정권 향상 교육 등의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성희롱·성폭력 경험

<표 23> 성희롱·성폭력 경험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10	5.3%
없다	1,946	93.7%
무응답	20	1.0%
전체	2,076	100.0%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무응답 20명을 제외한 2,056명의 학생이 성희롱·성폭력 경험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중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0명으로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성희롱·성폭력 상대

<표 24> 성희롱·성폭력 상대

(N=107,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교제 상대	10	9.3%
학과 선배나 후배	7	6.5%
친척(삼촌, 작은 아버지 등)	8	7.5%
학과동기	6	5.6%
교수	1	0.9%
가족(아버지나 오빠 등)	6	5.6%
기타	69	64.5%
전체	107	100.0%

*다중응답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의 성폭력을 행한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총 107명이 응답하였고, 이 질문은 다중응답이 가능하였다. 성희롱·성폭력 경험 상대는 기타가 69명(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제상대가 10명(9.3%), 친척이 8명(7.5%)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부분 낯선 사람으로 나타났다.

③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안

<표25>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안

(N=218,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참는다	29	13.3%
부모님과 상의	38	17.4%
친구와 상의	21	9.6%
가까운 주변인들과 상의	20	9.2%
직접 법적 대응	66	30.3%
본교 양성평등상담센터 전문가에게 요청	2	0.9%
본교 외 성문제 관련 기관에 요청	11	5.0%
잘 모르겠으며 생각하고 싶지 않다	24	11.0%
기타	7	3.2%
전체	218	100.0%

*다중응답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218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 문항 역시 다중응답이 가능하였다. 그 중 직접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66명(30.3%)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38명(17.4%), 참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9명(13.3%)로 나타났다.

④ 성희롱·성폭력 경험 시 상담센터 의뢰 의향

<표 26> 상담센터 의뢰 의향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예	1,452	69.9%
아니오	586	28.2%
기타 제외한 합계	2,038	98.2%
무응답	36	1.7%
전체	2,076	100.0%

성희롱·성폭력 경험 시 상담센터 의뢰 의향에 대한 질문에 총 2,076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그 중 상담센터에 의뢰를 할 의향이 있는 학생은 1,452명으로 69.9%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경험 시 상담센터에 의뢰할 의향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앞서 발간된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경험 시 상담센터 의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52.4%, 2014년 56.9%, 2015년 66.8%, 2016년 69.9%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013년 실태조사에서는 해당 문항이 조사되지 않음).

⑤ 의뢰하고 싶지 않은 이유

한편, 성희롱·성폭력 경험 시 상담센터 의뢰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한 학생들은 총 586명(28.2%)로 나타났다. 의뢰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27> 의뢰하고 싶지 않은 이유

(N=561,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상담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른다	79	14.1%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	181	32.3%
상담을 해도 도움 안 될 것 같다	162	28.9%
상담센터란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20	3.6%
비밀보장이 될 것 같지 않다	66	11.8%
기타	53	9.4%
전체	561	100.0%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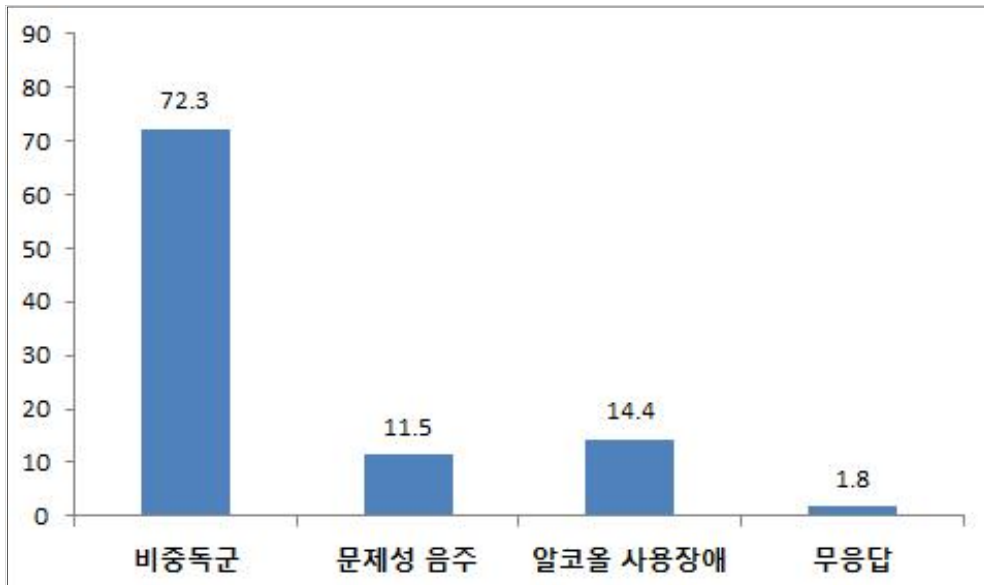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이 181명(3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상담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162명(28.9%), ‘상담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른다’는 학생이 79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3) 음주의 일반적 특성

<표 28> 음주의 일반적 특성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비중독군	1,501	72.3%
문제성 음주	239	11.5%
알코올 사용 장애	299	14.4%
무응답	37	1.8%
전체	2,076	100.0%



<그림 15> 음주의 일반적 특성(%)

음주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 2,076명 중 음주에 대한 태도가 건전한 편인 비중독군은 1,501명(72.3%),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는 299명(14.4%), 문제성 음주는 239명(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는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술에 의존하는 상태로 집중치료와 전문상담이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즉 자꾸 술이 마시고 싶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의지로는 마시는 술의 양이나 술 마시는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 전체응답자 중 14.4%라는 것을 의미한다.

① 지난 한 달 동안 1잔 이상 음주 여부

<표 29> 지난 한 달 동안 1잔 이상 음주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예	1,884	93.4%
아니오	168	6.0%
기타 제외한 합계	2,052	99.4%
무응답	24	0.6%
합 계	2,076	100.0%

지난 한 달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에 대한 질문에 총 2,076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그 중 지난 한 달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84명으로 93.4%의 비율을 차지했다.

② 1회 평균 음주량(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음주 여부

<표 30> 주 2회 이상 평균 음주량 음주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예	666	32.1%
아니오	1,148	55.3%
기타 제외한 합계	1,822	87.8%
기 타	262	12.6%
합 계	2,076	100.0%

1회 평균 음주량(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총 1,822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그 중 1회 평균 음주량(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경험하는 학생은 666명으로 32.1%를 차지했다. 요약하자면 앞선 조사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1잔 이상의 음주를 경험하였으나, 1회 평균 음주량(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경험하는 학생들은 3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잔 기준)

<표 31>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소주 1-2잔 미만	208	10.0%
소주 3-4잔	263	12.7%
소주 5-6잔	441	21.2%
소주 7-9잔	561	27.0%
소주 10잔 이상	521	25.1%
무응답	82	3.9%
합 계	2,0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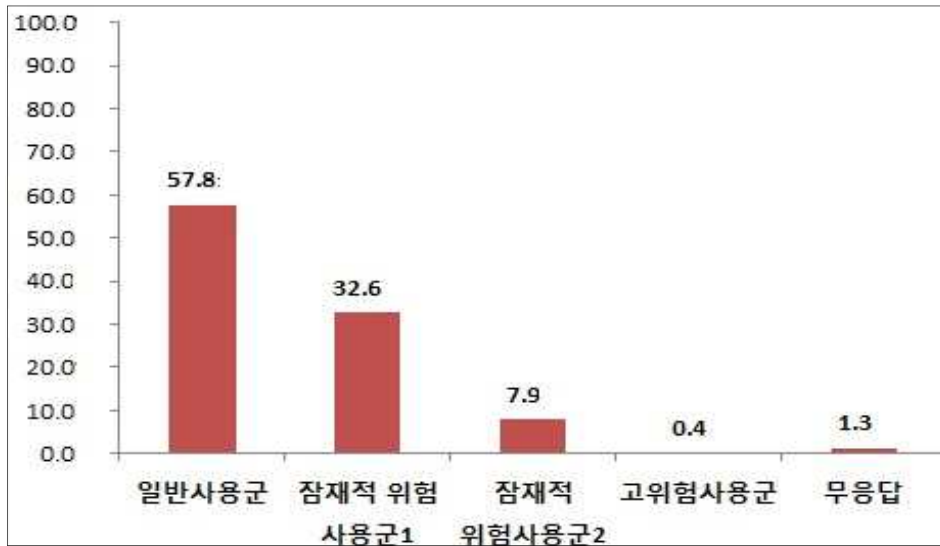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한 번에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소주 7-9잔’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561명(27.0%)로 가장 높았으며, 소주 10잔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21명(25.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로 소주 5-6잔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41명(21.2%)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 응답자 중 1회 음주량이 소주 한 병 이상(7-10잔)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2.1%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주 5잔 이상을 1회 음주에 마시는 학생의 분포는 73.3%인 것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사용의 일반적 특성

<표 32> 인터넷 사용의 일반적 특성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일반사용군 ⁴⁾	1,199	57.8%
잠재적 위험사용군 I ⁵⁾	677	32.6%
잠재적 위험사용군 II ⁶⁾	165	7.9%
고위험사용군 ⁷⁾	9	0.4%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응답)	26	1.3%
전체	2,076	100.0%



<그림 16> 인터넷 사용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수 2,076명 중 무응답이 26명(1.3%), 일반사용군이 1,199명(57.8%), 잠재적 위험사용군 I 이 677명(32.6%), 잠재적 위험사용군II가 165명(7.9%), 고위험사용군이 9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고위험사용군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았을 때 불안과 초조감 같은 금단증상 및 같은 효과를 위해 인터넷 접속량이 점점 늘게 되는 내성으로 인한 학습상의 소홀과 같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용군으로 전체 응답자의 0.4%의 학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인터넷을 자신의 흥미, 욕구,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
- 5) 현재 뚜렷한 문제는 없으나 사용시간이 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단계임.
- 6)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담이 요구됨.
- 7) 지속적 어려움이 생기면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5) 불안의 일반적 특성

<표 33> 불안의 일반적 특성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양호	2,001	96.4%
높음 ⁸⁾	5	0.2%
상당히 높음 ⁹⁾	3	0.1%
매우 높음 ¹⁰⁾	0	0.0%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응답)	67	3.2%
전체	2,076	100.0%

불안에 대한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수 2,076명 중 양호한 상태인 학생들이 2,001명(96.4%)로 나타났고, 높은 상태의 학생이 5명(0.2%), 상당히 높음이 3명(0.1%), 무응답이 67명(3.2%)로 나타났다.

(6) 우울의 일반적 특성

<표 34> 우울의 일반적 특성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정서적으로 양호함 ¹¹⁾	1,279	61.6%
경도의 우울 ¹²⁾	493	23.7%
우울증 ¹³⁾	245	11.8%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응답)	59	2.8%
전체	2,076	100.0%

우울에 대한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자수 2,076명 중 무응답이 59명(2.8%), 정서적으로 양호함이 1,279명(61.6%), 경도의 우울이 493명(23.7%), 우울증이 245명(11.8%)로 나타났다. 경도의 우울은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끔 우울감을 느끼며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로, 가벼운 우울 증세를 보여 관심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울증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동안 저조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유지되는 침울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우울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경도의 우울과 우울증을 합치면, 738명(35.5%)의 학생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불안수준이 높음.

9) 불안수준이 상당히 높음.

10) 불안수준이 매우 높음.

11)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양호한 정서 상태임.

12) 가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13) 우울증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상담이 필요함.

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절망감 경험 여부

<표 35> 최근 1년 간 2주 연속 절망감 경험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예	241	11.6%
아니오	1,659	79.9%
기타 제외한 합계	1,900	91.7%
기타	176	8.3%
합계	2,076	100.0%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한 학생들은 총 2,076명이었다. 그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절망감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241명으로 11.6%를 차지했다.

(7) 흡연의 일반적 특성

①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 여부

<표 36>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예	238	11.5%
아니오	1,751	84.3%
기타 제외한 합계	1,989	95.8%
기타	87	4.2%
합계	2,076	100.0%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한 학생들은 총 2,076명이었다. 그 중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38명(11.5%)이었다. 반대로 1,751명(84.3%)의 학생들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② 하루 흡연 양

<표 37> 하루 흡연 양

(N=238,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하루에 반 갑 미만	10	4.2%
하루에 반 갑 정도	107	45.0%
하루에 한 갑 정도	75	31.5%
하루에 한 갑 이상	45	18.9%
무응답 제외한 합계	237	99.6%

무응답	1	0.4%
합계	238	100.0%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38명의 하루 흡연 양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루에 ‘반 갑’ 정도로 응답한 학생이 107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한 갑’ 정도 75명(31.5%), 하루에 ‘한 갑 이상’이 45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③ 금연에 대한 생각

<표 38> 금연에 대한 생각

(N=238,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예	136	57.1%
아니오	73	30.7%
무응답 제외한 합계	209	87.8%
무응답	29	12.2%
합계	238	100.0%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38명에게 금연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6명(57.1%)의 학생들이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73명(30.7%)의 학생들이 금연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중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2/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성별비교

(1) 성별에 따른 전체 영역 비교

<표 39> 성별에 따른 전체 영역 비교

영역	성별	인원(명)	평균(점)	표준편차	t
성적자기결정권	남자	1,128	80.13	17.22	1.24
	여자	771	79.36	9.96	
음주	남자	1,114	9.49	5.83	4.90***
	여자	766	8.16	5.74	
인터넷	남자	1,119	39.49	10.13	-2.13*
	여자	769	40.50	10.09	
불안	남자	1,097	22.20	9.34	-4.58***
	여자	752	24.20	8.97	
우울	남자	1,098	13.21	8.68	-4.79***
	여자	761	15.21	9.11	

***p<.001, **p<0.01, *p<0.05

t-검정을 통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각 설문 영역에 대한 응답 평균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제외한 음주, 인터넷, 불안, 우울의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영역은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더 높아 더 위험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불안,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2015년도 실태조사의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영역 결과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 수준

<표 40> 성별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남자	여자	무응답
성적자기결정능력 높음 (93점 이상)	N	123	63	11
	(%)	(10.8)	(8.1)	(6.5)
노력 요함 (80-92점)	N	454	302	75
	(%)	(40.0)	(39.0)	(44.6)
위험 수준 (80점 미만)	N	551	406	77
	(%)	(48.6)	(52.5)	(45.8)
무응답	N	6	3	5
	(%)	(0.5)	(0.4)	(3.0)
전체	N	1,134	774	168
	(%)	(100.0)	(100.0)	(100.0)

‘성태도’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성적자기결정능력 높음’의 남학생은 123명(10.8%)으로 나타났고, ‘성적자기결정능력 노력 요함’의 남학생은 454명(40.0%), ‘성적자기결정권 위험수준’으로 나타난 학생은 551명(48.6%)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높음’ 가능성의 여학생은 63명(8.1%), ‘성적자기결정능력의 노력을 요하는’ 여학생은 302명(39.0%)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취약한 위험 수준’의 여학생은 406명(52.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의 신입생들이 성적자기결정능력은 위험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자기결정능력 위험수준’은 여학생(52.5%)이 남학생(48.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를 바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이나,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성별에 따른 음주

<표 41> 성별에 따른 음주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남자	여자	무응답
비중독군	N	787	598	116
	(%)	(69.4)	(77.1)	(69.9)
문제 음주	N	154	72	13
	(%)	(13.6)	(9.3)	(7.8)
알코올 중독 가능성	N	173	96	30
	(%)	(15.3)	(12.4)	(18.1)
무응답	N	20	8	9
	(%)	(1.8)	(1.3)	(4.2)
전체	N	1,134	766	196
	(%)	(100.0)	(100.0)	(100.0)

‘음주’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 중 비중독군이 787명(69.4%)으로 나타났고 문제음주는 154명(13.6%),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173명(15.3%)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비중독군이 598명(77.1%), 문제음주 72명(9.3%), 알코올 사용 장애 96명(12.4%)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28.9%가 문제음주나 알코올 사용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21.7%가 문제음주나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음주나 알코올 중독 가능성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

<표 4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남자	여자	무응답
일반사용군	N	678	430	91
	(%)	(59.8)	(55.6)	(54.2)
잠재적 위험사용군 I	N	360	263	54
	(%)	(31.7)	(34.0)	(32.1)

잠재적 위험사용군Ⅱ	N	76	73	16
	(%)	(6.7)	(9.4)	(9.5)
고위험사용군	N	5	3	1
	(%)	(0.4)	(0.4)	(0.6)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응답)	N	15	5	6
	(%)	(1.3)	(0.6)	(3.6)
전체	N	1,134	774	168
	(%)	(100.0)	(100.0)	(100.0)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체 남학생 1,134명 중 남자 일반사용자군은 678명(59.8%)이었으며, ‘잠재적 위험사용군Ⅰ’은 360명(31.7%), ‘잠재적 위험사용군Ⅱ’는 76명(6.7%), 고위험사용군은 5명(0.4%)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학생 774명 중에서는 일반사용군이 430명(55.6%), ‘잠재적 위험사용군Ⅰ’은 263명(34.0%), ‘잠재적 위험사용군Ⅱ’는 73명(9.4%), 고위험사용군은 3명(0.4%)으로 나타났다. 즉 잠재적 위험사용군을 포함한 위험사용군은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38.9%, 여학생의 경우 전체의 43.8%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인터넷 위험사용군의 비율을 보였다.

(5) 성별에 따른 불안

<표 43> 성별에 따른 불안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남자	여자	무응답
양호	N	1,097	751	153
	(%)	(96.7)	(97.0)	(91.1)
약간 높음	N	3	3	0
	(%)	(0.3)	(0.4)	(0.0)
상당히 높음	N	1	1	1
	(%)	(0.1)	(0.1)	(0.6)
매우 높음	N	0	0	0
	(%)	(0.0)	(0.0)	(0.0)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응답)	N	33	19	14
	(%)	(2.9)	(2.5)	(8.3)
전체	N	1,134	774	168
	(%)	(100.0)	(100.0)	(100.0)

‘불안’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체 남학생 1,134명 중 정상(양호) 상태는 1,097명(96.7%), 약간 높은 불안은 3명(0.3%), 상당히 높은 불안은 1명(0.1%)로 나타났다. 전체 여학생 774명 중 정상(양호) 상태는 751명(97.0%), 약간 높은 불안은 3명(0.4%), 상당히 높은 불안은 1명(0.1%)로 나타났다.

(6) 성별에 따른 우울

‘우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체 남학생 1,134명중 정서적으로 양호한 학생이 736명(64.9%), 경도의 우울이 248명(21.9%), 우울증이 114명(10.1%)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774명의 학생들 중 정서적으로 양호한 학생들이 449명(58.0%), 정도의 우울이 201명(26.0%), 우울증이 111명(14.3%)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 중 정도의 우울과 우울증인 학생들의 비율은 32.0%, 여학생들 중 정도의 우울과 우울증인 학생들의 비율은 40.3%로,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비율의 우울영역이 나타났다.

<표 44> 성별에 따른 우울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남자	여자	무응답
정서적으로 양호	N	736	449	94
	(%)	(64.9)	(58.0)	(56.0)
경도의 우울	N	248	201	44
	(%)	(21.9)	(26.0)	(26.2)
우울증	N	114	111	20
	(%)	(10.1)	(14.3)	(11.9)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응답)	N	36	13	10
	(%)	(3.2)	(1.7)	(6.0)
전체	N	1,134	774	168
	(%)	(100.0)	(100.0)	(100.0)

3) 단과대별 비교

(1) 단과대별 전체 영역 비교

<표 45> 단과대별 전체 영역 비교

(단위: 명)

영역	단과대학	N	평균	표준편차	F
성적자기결정능력	인문대학	253	78.78	9.82	2.757** 1<6
	자연과학대학	58	78.93	10.43	
	법과대학	48	80.73	7.46	
	사회과학대학	251	79.37	12.67	
	경제통상대학	119	80.90	12.14	
	경영대학	335	82.94	25.97	
	공과대학	390	78.62	9.62	
	IT대학	549	78.73	11.40	
	예술창작학부	16	81.25	9.46	
	스포츠학부	42	81.67	10.56	
	합계(무응답 제외)	2,061	79.73	14.52	
음주	인문대학	248	7.32	5.18	3.775*** 1<5, 8
	자연과학대학	57	9.49	8.35	
	법과대학	48	9.63	6.54	
	사회과학대학	250	8.42	5.85	
	경제통상대학	118	10.13	7.04	
	경영대학	326	9.35	5.87	
	공과대학	389	9.19	4.92	
	IT대학	544	9.20	6.46	
	예술창작학부	16	8.94	4.28	
	스포츠학부	42	10.88	4.13	
	합계(무응답 제외)	2,038	9.00	5.96	
인터넷 사용	인문대학	252	39.57	10.16	3.967*** 6<8
	자연과학대학	59	38.97	9.99	
	법과대학	48	38.00	9.52	
	사회과학대학	251	40.75	9.67	
	경제통상대학	120	39.54	10.39	
	경영대학	325	38.57	10.66	
	공과대학	390	39.04	9.57	
	IT대학	546	41.72	10.31	
	예술창작학부	16	39.75	12.03	
	스포츠학부	42	36.38	8.15	
	합계(무응답 제외)	2,049	39.91	10.15	
불안 상태	인문대학	247	23.37	9.15	1.978
	자연과학대학	56	21.64	8.04	
	법과대학	47	22.21	7.88	
	사회과학대학	245	24.31	9.43	
	경제통상대학	117	21.31	9.38	
	경영대학	315	23.39	9.81	
	공과대학	384	22.45	8.98	
	IT대학	534	23.33	8.98	
	예술창작학부	16	24.94	8.35	
	스포츠학부	41	20.24	10.58	

	합계(무응답 제외)	2,002	23.05	9.22	
우울 여부	인문대학	251	14.10	8.86	1.817
	자연과학대학	55	14.69	9.80	
	법과대학	48	12.90	7.06	
	사회과학대학	249	15.18	8.80	
	경제통상대학	118	14.39	9.11	
	경영대학	307	14.19	9.45	
	공과대학	387	12.76	7.95	
	IT대학	543	14.58	8.97	
	예술창작학부	16	15.44	8.49	
	스포츠학부	42	12.98	11.94	
	합계(무응답 제외)	2,016	14.11	8.90	

*** $p<.001$, ** $.01<p<.05$

※ F값 항목 표에서 F값 아래 숫자는 아래의 번호별 하위 집단을 의미

1:인문대학, 2:자연과학대학, 3:법과대학, 4:사회과학대학, 5:경제통상대학, 6:경영대학, 7:공과대학, 8:IT대학, 9:예술창작학부 10:스포츠학부

각 설문 영역에 대해 단과대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적자기결정능력, 음주, 인터넷, 불안, 우울의 총 다섯 영역 중 성적자기결정능력, 음주, 인터넷 사용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성적자기결정능력에서는 인문대학이 경영대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대학이 경영대학에 비해 성(性)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음주 영역에서는 인문대학이 경제통상대학과 IT대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영역은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음주 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문대학이 경제통상대학이나 IT대학에 비해 양호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 영역은 경영대학과 IT대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IT대학이 경영대학에 비해 인터넷 위험사용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단과대별 성적자기결정능력

<표 46> 단과대별 성적자기결정능력

(N=2,076, 단위: 명)

구분	단과대학										
	인문 대학	자연 과학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제 통상 대학	경영 대학	공과 대학	IT 대학	예술 창작 학부	스포츠 학부	무응답
성적자기결정 능력 높음	N 16 (%) (6.3)	5 (8.5)	2 (4.2)	29 (11.6)	17 (13.7)	50 (14.7)	23 (5.9)	49 (8.9)	2 (12.5)	4 (9.5)	0 (0.0)
노력 요함	N 108 (%) (42.7)	28 (47.5)	24 (50.0)	102 (40.6)	43 (34.7)	140 (41.3)	162 (41.4)	192 (34.8)	8 (50.0)	23 (54.8)	0 (0.0)
위험수준	N 129 (%) (51.0)	25 (42.4)	22 (45.8)	120 (47.8)	59 (47.6)	145 (42.8)	205 (52.4)	308 (55.9)	6 (37.5)	15 (35.7)	0 (0.0)
무응답	N 0 (%) (0.0)	1 (1.7)	0 (0.0)	0 (0.0)	5 (4.0)	4 (1.2)	1 (0.3)	2 (0.4)	0 (0.0)	0 (0.0)	2 (100.0)
전체	N 253 (%) (100.0)	59 (100.0)	48 (100.0)	251 (100.0)	124 (100.0)	339 (100.0)	391 (100.0)	551 (100.0)	16 (100.0)	42 (100.0)	2 (100.0)

‘성적자기결정 능력’에 대해 단과대별로 응답을 비교해 본 결과, ‘성적자기결정 능력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경영대학이 14.7%로 나타났고, 경제통상대학이 13.7%의 순서이고, ‘노력 요함’의 비율은 스포츠학부 54.8%, 법과대학 및 예술창작학부가 50.0%의 순서였다. 마지막으로 ‘위험수준’의 경우는 IT대학이 55.9%로 가장 높았고, 공과대학이 52.4% 순으로 나타났다.

(3) 단과대별 음주

<표 47> 단과대별 음주

(N=2,076 단위: 명)

구분	단과대학										
	인문 대학	자연 과학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제 통상 대학	경영 대학	공과 대학	IT 대학	예술 창작 학부	스포츠 학부	무응답
정상	N 208 (%) (82.2)	42 (71.2)	31 (64.6)	184 (73.3)	76 (61.3)	241 (71.1)	287 (73.4)	395 (71.7)	11 (68.8)	26 (61.9)	0 (0.0)
문제음주	N 17 (%) (6.7)	6 (10.2)	7 (14.6)	31 (12.4)	18 (14.5)	35 (10.3)	51 (13.0)	62 (11.3)	3 (18.8)	8 (19.0)	0 (0.0)
알코올 사용 장애	N 23 (%) (9.1)	9 (15.3)	10 (20.8)	35 (13.9)	24 (19.4)	50 (14.7)	51 (13.0)	87 (15.8)	2 (12.5)	8 (19.0)	0 (0.0)
무응답	N 5 % (2.0)	2 (3.4)	0 (0.0)	1 (0.4)	6 (4.8)	13 (3.8)	2 (0.5)	7 (1.3)	0 (0.0)	0 (0.0)	2 (100.0)
전체	N 253 % (100.0)	59 (100.0)	48 (100.0)	251 (100.0)	124 (100.0)	339 (100.0)	391 (100.0)	551 (100.0)	16 (100.0)	42 (100.0)	2 (100.0)

‘음주 중독군’에 대해 단과대별로 응답을 비교해 본 결과, ‘정상 상태’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인문대학 82.2%, 공과대학 73.4%, 사회과학대학 73.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문제 음주’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스포츠학부 19.0%, 예술창작학부 1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법과대 20.8%, 경제통상대학 19.4%, 스포츠학부 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단과대별 인터넷 사용

<표 48> 단과대별 인터넷 사용

(N=2,076, 단위: 명)

구분	단과대학										
	인문 대학	자연 과학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제 통상 대학	경영 대학	공과 대학	IT 대학	예술 창작 학부	스포츠 학부	무응답
일반사용군	N 147 (%) (58.1)	35 (59.3)	29 (60.4)	138 (55.0)	75 (60.5)	207 (61.1)	248 (63.4)	280 (50.8)	9 (56.3)	31 (73.8)	0 (0.0)
잠재적	N 92	21	17	89	35	87	116	203	6	10	0

위험사용군 I	(%)	(36.4)	(35.6)	(35.4)	(35.5)	(28.2)	(25.7)	(29.7)	(36.8)	(37.5)	(23.8)	(0.0)
잠재적 위험사용군 II	N	11	3	2	24	9	31	26	57	1	1	0
	(%)	(4.3)	(5.1)	(4.2)	(9.6)	(7.3)	(9.1)	(6.6)	(10.3)	(6.3)	(2.4)	(0.0)
고위험사용군	N	2	0	0	0	1	0	0	6	0	0	0
	(%)	(0.8)	(0.0)	(0.0)	(0.0)	(0.8)	(0.0)	(0.0)	(1.1)	(0.0)	(0.0)	(0.0)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응답)	N	1	0	0	0	4	14	1	5	0	0	2
	(%)	(0.4)	(0.0)	(0.0)	(0.0)	(3.2)	(4.1)	(0.3)	(0.9)	(0.0)	(0.0)	(100.0)
전체	N	253	59	48	251	124	339	391	551	16	42	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터넷 사용’에 대해 단과대별로 응답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사용군’의 비율이 높은 학과는 스포츠학부 73.8%, 공과대학 63.4%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사용군 I’이 높은 단과대는 예술창작학부 37.5%, IT대학 36.8%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사용군 II’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IT대학 10.3%, 사회과학대학 9.6%로 나타났다. ‘고위험사용군’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IT대학이 1.1%로 나타났다.

(5) 단과대별 불안

<표 49> 단과대별 불안

(N=2,076, 단위: 명)

구분	단과대학										
	인문 대학	자연 과학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제 통상 대학	경영 대학	공과 대학	IT 대학	예술 창작 학부	스포츠 학부	무응답
양호	N 247 (%) (97.6)	56 (94.9)	47 (97.9)	245 (97.6)	117 (94.4)	314 (92.6)	385 (98.5)	532 (96.6)	16 (100.0)	41 (97.6)	0 (0.0)
높음	N 1 (%) (0.4)	0 (0.0)	0 (0.0)	0 (0.0)	0 (0.0)	2 (0.6)	0 (0.0)	2 (0.4)	0 (0.0)	0 (0.0)	0 (0.0)
상당히 높음	N 0 (%)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5)	0 (0.0)	0 (0.0)	0 (0.0)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대답)	N 5 (%) (2.0)	3 (5.1)	1 (2.1)	6 (2.4)	7 (5.6)	13 (3.8)	6 (1.5)	14 (2.5)	0 (0.0)	1 (2.4)	12 (100)
전체	N 253 (%) (100.0)	59 (100.0)	48 (100.0)	251 (100.0)	124 (100.0)	339 (100.0)	391 (100.0)	551 (100.0)	16 (100.0)	42 (100.0)	12 (100.0)

‘불안’에 대해 단과대별로 응답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양호 상태’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경제통상대학 예술창작학부 100%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위로는 공과대학 98.5%로 나타났다. ‘높음’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경영대학으로 나왔으나, 0.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불안이 ‘상당히 높음’으로 나온 단과대는 IT대학으로 0.5%이고,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0%로 나타났다.

(6) 단과대별 우울

<표 50> 단과대별 우울

(N=2,076, 단위: 명)

구분	단과대학											
	인문 대학	자연 과학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제 통상 대학	경영 대학	공과 대학	IT대학	예술창 작학부	스포츠 학부	무응답	
양호	N	156	38	35	144	75	200	275	319	9	28	0
	(%)	(61.7)	(64.4)	(72.9)	(57.4)	(60.5)	(59.0)	(70.3)	(57.9)	(56.3)	(66.7)	(0.0)
경도우울	N	63	8	10	70	29	64	80	158	3	7	0
	(%)	(24.9)	(13.6)	(20.8)	(27.9)	(23.4)	(18.9)	(20.5)	(28.7)	(18.8)	(16.7)	(0.0)
우울증	N	32	9	3	35	14	43	32	66	4	7	0
	(%)	(12.6)	(15.3)	(6.3)	(13.9)	(11.3)	(12.7)	(8.2)	(12.0)	(25.0)	(16.7)	(0.0)
기타(무응답 or 불성실한 대답)	N	2	4	0	2	6	32	4	8	0	0	2
	(%)	(0.8)	(6.8)	(0.0)	(0.8)	(4.8)	(9.4)	(1.0)	(1.5)	(0.0)	(0.0)	(100)
전체	N	253	59	48	251	124	339	391	551	16	42	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울’에 대해 단과대별로 응답을 비교해 본 결과, 우울한 정도가 ‘양호’한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법학대학 72.9%, 공과대학 70.3%로 나타났다. ‘경도우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과대는 IT대학 28.7%, 사회과학대 27.9%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예술창작학부 25.0%, 스포츠학부 16.7%로 나타났다.

3. 자살충동

1) 자살충동 여부

(1) 자살충동 여부 실태

<표 51> 자살충동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생각해본 적 있다	292	14.1%
생각해본 적 없다	1,693	81.6%
기타 제외한 합계	1,985	95.6%
기타	91	4.4%
합계	2,076	100.0%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의 유무에 대한 결과, 2,076명 중 ‘생각해본 적이 있다’ 292명(14.1%), ‘생각해본 적 없다’ 1,693명(81.6%)으로 10명 중 1~2명꼴로 자살충동을 느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교 실태조사 결과, 자살충동을 느낀 경우가 2014년 10.7%, 2015년 12.5%로 나타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 여부 비교

<표 52>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자살충동	생각해본 적 있다	빈도	122	146	24	292
		자살충동 중%	10.8%	19.0%	14.0%	14.1%
		성별%	41.8%	50.0%	8.2%	100.0%
	생각해본 적 없다	빈도	958	602	133	1,693
		자살충동 중%	84.5%	78.2%	77.3%	81.6%
		성별%	56.6%	35.6%	7.9%	100.0%
	무응답	빈도	54	22	15	91
		자살충동 중%	4.8%	2.9%	8.7%	4.4%
		성별%	59.3%	24.2%	16.5%	100.0%
전체	빈도	1,134	770	172	2,076	
	자살충동 중%	100.0%	100.0%	100.0%	100.0%	
	성별%	54.6%	37.1%	8.3%	100.0%	

최근 1년 동안 자살충동 여부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전체응답자 중 자살충동을 ‘생각해본 적 없다’는 학생이 1,693명으로 81.6%를 차지하였고,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9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1%에 해당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을 분석해보면 남학생이 122명으로 41.8%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146명으로 50.0%를 차지했다. 자살생각을 해

본 적 있는 학생들 중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단과대별 자살충동 여부 비교

<표 53> 단과대별 자살충동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자 살 충 동	생각해본 적 있다	빈도	52	6	12	45
		자살충동 중%	17.8%	2.1%	4.1%	15.4%
	생각해본 적 없다	빈도	197	47	36	198
		자살충동 중%	11.6%	2.8%	2.1%	11.7%
	무응답	빈도	4	6	0	8
		자살충동 중%	4.3%	6.5%	0.0%	8.7%
전체	빈도	253	59	48	251	
	자살충동 중%	12.2%	2.8%	2.3%	12.1%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구분		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IT대학	
자 살 충 동	생각해본 적 있다	빈도	17	32	45	77
		자살충동 중%	5.8%	11.0%	15.4%	26.4%
	생각해본 적 없다	빈도	100	270	337	455
		자살충동 중%	5.9%	16.0%	19.9%	26.9%
	무응답	빈도	7	37	9	19
		자살충동 중%	0.3%	1.8%	0.4%	0.9%
전체	빈도	124	339	391	551	
	자살충동 중%	6.0%	16.3%	18.8%	26.5%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구분		대학			전체	
		예술창작학부	스포츠학부	무응답		
자 살 충 동	생각해본 적 있다	빈도	2	4	0	292
		자살충동 중%	0.7%	1.4%	0.0%	100.0%
	생각해본 적 없다	빈도	14	38	0	1,692
		자살충동 중%	0.8%	2.2%	0.0%	100.0%
	무응답	빈도	0	0	2	92
		자살충동 중%	0.0%	0.0%	2.2%	100.0%
전체	빈도	16	42	2	2,076	
	자살충동 중%	0.8%	2.0%	0.1%	100.0%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최근 1년 동안의 자살충동 여부를 대학별로 비교해보았다. 총 2,076명 중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은 1,692명을 제외한 292명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292명 중 IT대학 학생들이 77명(2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인문대학이 52명(17.8%), 사회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45명(15.4%)로 나타났다.

2)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1)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실태

<표 54>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N=303,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경제적 어려움	10	3.3%
직장 문제	18	5.9%
외로움, 고독	70	23.1%
가정불화	31	10.2%
성적 및 진학문제	134	44.2%
이성문제	11	3.6%
질환 및 장애	3	1.0%
친구불화	1	0.3%
기타	25	8.3%
합계	303	100.0%

*다중응답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한 물음(다중응답 가능)에 대해 응답한 총 303명 중 134명(44.2%)의 학생들이 '성적 및 진학문제'를 자살충동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외로움과 고독'이 70명(23.1%)으로 나타났고, '가정불화' 31명(10.2%), '기타' 25명(8.3%)으로 조사되었다.

(2)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표 55>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 주된 이유

(N=303, 단위: 명)

구분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전체	
	경제적 어려움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및 진학문제		
남자	빈도	5	7	38	8	63	121
	성별 중%	3.4%	4.8%	25.9%	5.4%	42.9%	82.3%
	이유 중%	50.0%	38.9%	54.3%	25.8%	47.0%	82.3%
여자	빈도	5	11	32	23	71	142
	성별 중%	3.2%	7.1%	20.5%	14.7%	45.5%	91.0%
	이유 중%	50.0%	61.1%	45.7%	74.2%	53.0%	91.0%
합계	빈도	10	18	70	31	134	263
	전체 중%	3.3%	5.9%	23.1%	10.2%	44.2%	86.8%
	이유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86.8%

구분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				전체
	이성문제	질환 및 장애	친구불화	기타	
남자	11	3	1	25	40
여자	0	0	0	0	0
합계	11	3	1	25	40

	빈도	7	2	1	16	26	
성 별	남자	성별 중%	4.8%	1.4%	0.7%	10.9%	17.7%
		이유 중%	60.0%	66.7%	100.0%	65.2%	17.7%
	빈도	4	1	0	9	14	
여 자	성별 중%	2.6%	0.6%	0.0%	5.8%	9.0%	
		이유 중%	40.0%	33.3%	0.0%	34.8%	9.0%
합 계	빈도	11	3	1	25	40	
	전체 중%	3.6%	1.0%	0.3%	8.3%	13.2%	
	이유 중%	100.0%	100.0%	100.0%	100.0%	13.2%	

*다중응답

1년 동안 자살충동의 주요 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303명의 자살충동을 경험한 학생들 중 남학생 147명, 여학생 156명이 응답했고, 남학생 147명 중 63명(47.0%)의 학생들이 '성적 및 진학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여학생 156명 중 71명(53.0%)의 학생들 역시 '성적 및 진학문제'를 자살충동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했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및 진학문제'가 자살충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3) 자해충동 여부

<표 56> 1개월 간 자해충동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생각해본 적 있다	34	1.6%
생각해본 적 없다	332	16.0%
무응답을 제외한 합계	366	17.6%
무응답	1,710	82.4%
합계	2,076	100.0%

지난 1개월 동안 자해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34명(1.6%)에 해당하는 학생이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응답한 학생은 366명이며 그 중에서 '자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9.3%에 해당하였다.

4) 자살충동의 심각성

(1) 자살충동의 심각성 실태

① 지난 1개월 간 자살충동에 대한 생각

지난 1개월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7명(5.2%)으로 나타났다.

<표 57> 1개월 간 자살충동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생각해본 적 있다	107	5.2%
생각해본 적 없다	258	12.4%
무응답 제외한 합계	365	17.6%
기타	1,711	82.4%
합계	2,076	100.0%

② 지난 1개월 간 자살계획

지난 1개월간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7명을 대상으로 자살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명(15.0%)의 학생들이 ‘계획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8> 1개월 간 자살계획 여부

(N=107,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계획한 적 있다	16	15.0%
계획한 적 없다	91	85.0%
합계	107	100.0%

③ 지난 1개월 간 자살시도

위와 동일하게 지난 1개월간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개월 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8명(7.5%)의 학생들이 ‘시도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9> 1개월 간 자살시도 여부

(N=107,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시도한 적 있다	8	7.5%
시도한 적 없다	99	92.5%
합계	107	100.0%

④ 일생동안 자살시도

일생동안 자살시도를 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 중 65명(3.1%)의 학생들이 '시도한 적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응답한 65명 중 지난 1개월 동안 자살시도를 한 적 있는 학생은 2명(4.4%)으로 나타났다.

<표 60> 일생동안 자살시도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시도한 적 있다	65	3.1%
시도한 적 없다	294	14.2%
무응답 제외한 합계	359	17.3%
기타	1,717	82.7%
합계	2,076	100.0%

(2) 성별 자살충동의 심각성 비교

① 성별에 따른 지난 1개월 간 자살에 대한 생각 여부

<표 61> 성별에 따른 1개월 간 자살에 대한 생각 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무응답	전체
		남자	여자		
생각한 적 있다	빈도	48	48	11	107
	생각 여부 중%	44.9%	44.9%	10.3%	100.0%
	성별 중%	4.2%	6.2%	6.5%	5.2%
생각한 적 없다	빈도	120	117	21	258
	생각 여부 중%	46.5%	45.3%	8.1%	100.0%
	성별 중%	10.6%	15.1%	12.5%	12.4%
무응답	빈도	966	609	136	1,711
	생각 여부 중%	56.5%	35.6%	7.9%	100.0%
	성별 중%	85.2%	78.7%	81.0%	82.4%
전체	빈도	1,134	774	168	2,076
	생각 여부 중%	54.6%	37.3%	8.1%	100.0%
	성별 중%	100.0%	100.0%	100.0%	100.0%

지난 1개월 간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는 학생 중 남학생은 48명(44.9%), 여학생은 48명(44.9%)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② 성별에 따른 지난 1개월 간 자살계획 여부

<표 62> 성별에 따른 1개월 간 자살계획 여부

(N=107 단위: 명)

구분		성별		무응답	전체
		남자	여자		
계획한 적 있다	빈도	7	6	3	16
	계획 여부 중%	43.8%	37.5%	18.8%	100.0%
	성별 중%	14.6%	12.5%	27.3%	15.0%
계획한 적 없다	빈도	41	42	8	91
	계획 여부 중%	45.1%	46.2%	8.8%	100.0%
	성별 중%	85.4%	87.5%	72.7%	85.0%
전체	빈도	48	48	11	107
	계획 여부 중%	44.9%	44.9%	10.3%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앞서 지난 1개월 간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107명에게 자살계획을 질문한 결과, '계획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남학생은 7명(14.6%), 여학생은 6명(12.5%)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③ 성별에 따른 지난 1개월 간 자살시도 여부

<표 63> 성별에 따른 1개월 간 자살시도 여부

(N=107, 단위: 명)

구분		성별		무응답	전체
		남자	여자		
시도한 적 있다	빈도	3	3	2	8
	시도 여부 중%	37.5%	37.5%	25.0%	100.0%
	성별 중%	6.3%	6.3%	4.2%	7.5%
시도한 적 없다	빈도	45	45	9	99
	시도 여부 중%	45.5%	45.5%	9.1%	100.0%
	성별 중%	93.8%	93.8%	18.8%	92.5%
전체	빈도	48	48	11	107
	시도 여부 중%	44.9%	44.9%	10.2%	100.0%
	성별 중%	100.0%	100.0%	100.0%	100.0%

지난 1개월 간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명과 3명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④ 성별에 따른 일생동안 자살시도 경험

<표 64> 성별에 따른 일생동안 자살시도 경험

(N=2,076, 단위: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시도한 적 있다	빈도	30	31	4	61
	시도 여부 중%	49.2%	50.8%	6.6%	100.0%
	성별 중%	2.6%	4.0%	2.4%	2.9%
시도한 적 없다	빈도	138	131	25	269
	시도 여부 중%	51.3%	48.7%	9.3%	100.0%
	성별 중%	12.2%	16.9%	14.9%	13.0%
무응답	빈도	966	610	139	1,715
	시도 여부 중%	51.4%	32.5%	7.4%	91.3%
	성별 중%	85.2%	78.8%	82.7%	82.6%
전체	빈도	1,134	774	168	2,076
	시도 여부 중%	54.6%	37.3%	8.1%	100.0%
	성별 중%	100.0%	100.0%	100.0%	100.0%

일생동안 한 차례라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은 30명, 여학생은 31명으로 나타났다.

(3) 단과대별 자살충동의 심각성

<표 65> 단과대별 1개월 간 자살충동 심각성

(N=2,076, 단위: 명)

구분	대학						
	인문 대학	자연 과학 대학	법과 대학	사회 과학 대학	경제 통상 대학	경영 대학	
생각한 적 있다	빈도	20	3	3	13	6	9
	생각 여부 중%	18.7%	2.8%	2.8%	12.1%	5.6%	8.4%
	대학 중%	7.9%	5.1%	6.3%	5.2%	4.8%	2.7%
생각한 적 없다	빈도	38	5	9	47	11	35
	생각 여부 중%	14.7%	1.9%	3.5%	18.2%	4.3%	13.6%
	대학 중%	15.0%	8.5%	18.8%	18.7%	8.9%	10.3%
무응답	빈도	195	51	36	191	107	295
	생각 여부 중%	11.4%	3.0%	2.1%	11.2%	6.3%	17.2%
	대학 중%	77.1%	86.4%	75.0%	76.1%	86.3%	87.0%
전체	빈도	253	59	48	251	124	339
	생각 여부 중%	12.2%	2.8%	2.3%	12.1%	6.0%	16.3%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살 계 획	계획한 적 있다	빈도	4	2	0	0	0	1
		계획 여부 중%	23.5%	11.8%	0.0%	0.0%	0.0%	5.9%
		대학 중%	1.6%	3.4%	0.0%	0.0%	0.0%	0.3%
	계획한 적 없다	빈도	54	6	12	59	17	44
		계획 여부 중%	15.5%	1.7%	3.4%	16.9%	4.9%	12.6%
		대학 중%	21.3%	10.2%	25.0%	23.5%	13.7%	13.0%
	무응답	빈도	195	51	36	192	107	294
		계획 여부 중%	11.4%	3.0%	2.1%	11.2%	6.3%	17.2%
		대학 중%	77.1%	86.4%	75.0%	76.5%	86.3%	86.7%
	전체	빈도	253	59	48	251	124	339
		계획 여부 중%	12.2%	2.8%	2.3%	12.1%	6.0%	16.3%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살 시 도	시도한 적 있다	빈도	2	1	0	0	0	0
		시도 여부 중%	20.0%	10.0%	0.0%	0.0%	0.0%	0.0%
		대학 중%	0.8%	1.7%	0.0%	0.0%	0.0%	0.0%
	시도한 적 없다	빈도	56	7	12	60	17	45
		시도 여부 중%	15.7%	2.0%	3.4%	16.8%	4.8%	12.6%
		대학 중%	22.1%	11.9%	25.0%	23.9%	13.7%	13.3%
	무응답	빈도	195	51	36	191	107	294
		시도 여부 중%	11.4%	3.0%	2.1%	11.2%	6.3%	17.2%
		대학 중%	77.1%	86.4%	75.0%	76.1%	86.3%	86.7%
	전체	빈도	253	59	48	251	124	339
		시도 여부 중%	12.2%	2.8%	2.3%	12.1%	6.0%	16.3%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학								
구분		공과 대학		IT학부	예술창작 학부	스포츠 학부	무응답	전체
자 살 생 각	생각한 적 있다	빈도	15	37	1	0	0	107
		생각 여부 중%	14.0%	34.6%	0.9%	0.0%	0.0%	100.0%
		대학 중%	3.8%	6.7%	6.3%	0.0%	0.0%	5.2%
	생각한 적 없다	빈도	41	65	1	6	0	258
		생각 여부 중%	15.9%	25.2%	0.4%	2.3%	0.0%	100.0%
		대학 중%	10.5%	11.8%	6.3%	14.3%	0.0%	12.4%
	무응답	빈도	335	449	14	36	2	1,711
		생각여부 중%	19.6%	26.2%	0.8%	2.1%	0.1%	100.0%
		대학 중%	85.7%	81.5%	87.5%	85.7%	100.0%	82.4%
	전체	빈도	391	551	16	42	2	2,076
		생각 여부 중%	18.8%	26.5%	0.8%	20.0%	0.1%	100.0%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살 계획	계획한 적 있다	빈도	5	5	0	0	0	17
		계획 여부 중%	29.4%	29.4%	0.0%	0.0%	0.0%	100.0%
		대학 중%	1.3%	0.9%	0.0%	0.0%	0.0%	0.8%
	계획한 적 없다	빈도	52	97	2	6	0	349
		계획 여부 중%	14.9%	27.8%	0.6%	1.7%	0.0%	100.0%
		대학 중%	13.3%	17.6%	12.5%	14.3%	0.0%	16.8%
	무응답	빈도	334	449	14	36	2	1710
		계획 여부 중%	19.5%	26.2%	0.8%	2.1%	0.1%	100.0%
		대학 중%	85.4%	81.5%	87.5%	85.7%	100.0%	82.4%
전체	빈도	391	551	16	42	2	2076	
	계획 여부 중%	18.8%	26.5%	0.8%	20.0%	0.1%	100.0%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살 시도	시도한 적 있다	빈도	0	7	0	0	0	10
		시도 여부 중%	0.0%	70.0%	0.0%	0.0%	0.0%	100.0%
		대학 중%	0.0%	1.9%	0.0%	0.0%	0.0%	0.5%
	시도한 적 없다	빈도	57	95	2	6	0	357
		시도 여부 중%	16.0%	26.6%	0.6%	1.7%	0.0%	100.0%
		대학 중%	14.6%	17.2%	12.5%	14.3%	0.0%	17.2%
	무응답	빈도	334	449	14	36	2	1,709
		시도 여부 중%	19.5%	26.3%	0.8%	2.1%	0.1%	100.0%
		대학 중%	85.4%	81.5%	87.5%	85.7%	100.0%	82.3%
전체	빈도	391	551	16	42	2	2,076	
	시도 여부 중%	18.8%	26.5%	0.8%	20.0%	0.1%	100.0%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난 1개월 간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학생을 대학별로 분석하였다.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 있는 학생은 IT대학이 37명(34.6%)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살을 계획한 적 있는 학생은 공과대학, IT대학이 각각 5명(29.4%)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학생은 IT대학이 각각 7명(70%)으로 나타났다.

<표 66> 단과대별 일생동안 자살시도 경험

(N=2,076 단위: 명)

구분		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자살 시도	시도한 적 있다	빈도	15	3	2	7	2	9
		시도 여부 중%	23.1%	4.6%	3.1%	10.8%	3.1%	13.8%
		대학 중%	5.9%	5.1%	4.2%	2.8%	1.6%	2.7%
	시도한 적 없다	빈도	43	5	10	49	15	34
		시도 여부 중%	14.6%	1.7%	3.4%	16.7%	5.1%	11.6%
		대학 중%	17.0%	8.5%	20.8%	19.5%	12.1%	10.0%
	무응답	빈도	195	51	36	195	107	296
		시도 여부 중%	11.4%	3.0%	2.1%	11.4%	6.2%	17.2%
		대학 중%	77.1%	86.4%	75.0%	77.7%	86.3%	87.3%
	전체	빈도	253	59	48	251	124	339
		시도 여부 중%	12.2%	2.8%	2.3%	12.1%	6.0%	16.3%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대학					전체	
		공과대학	IT대학	예술창작 학부	스포츠 학부	무응답		
자살 시도	시도한 적 있다	빈도	6	18	1	2	0	65
		시도 여부 중%	9.2%	27.7%	1.5%	3.1%	0.0%	100.0%
		대학 중%	1.5%	3.3%	6.3%	4.8%	0.0%	3.1%
	시도한 적 없다	빈도	51	82	1	4	0	294
		시도 여부 중%	17.3%	27.9%	0.3%	1.4%	0.0%	100.0%
		대학 중%	13.0%	14.9%	6.3%	9.5%	0.0%	14.2%
	무응답	빈도	334	451	14	36	2	1,717
		시도 여부 중%	19.5%	26.3%	0.8%	2.1%	0.1%	100.0%
		대학 중%	85.4%	81.9%	87.5%	85.7%	100.0%	82.7%
	전체	빈도	391	551	16	42	2	2,076
		시도 여부 중%	18.8%	26.5%	0.8%	20.0%	0.1%	100.0%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생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지 단과대별로 보았을 때, IT대학 18명(27.7%), 인문대학이 15명(23.1%), 경영대학 9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5) 자살충동 대처방안

(1) 자살충동 대처방안

<표 67> 자살충동 대처방안

(N=378,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잠을 잔다	87	23.0%
술을 마시며 잊어버림	11	2.9%
친구 등에게 이야기	50	13.2%
인터넷을 돌아다님	26	6.9%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	111	29.4%
구체적인 자살방법 생각	19	5.0%
약물 복용	1	0.3%
자살 관련 자료나 책 살펴 봄	8	2.1%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적 없음	34	9.0%
기타	31	8.2%
합계	378	100.0%

*다중응답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묻는 물음에 총 378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였고 이 문항은 다중응답이 가능했다. 그 중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학생들이 111명(2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잠을 잔다’는 학생들이 87명(23.0%), ‘친구 등에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50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을 잔다, 술을 마시며 잊어버림, 인터넷을 돌아다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림’ 등과 같은 회피대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62.2%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자살욕구 대처방안

<표 68> 성별에 따른 자살욕구 대처방안 비교

(N=378, 단위: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잠을 잔다	빈도	32	45	10	87
	대처방안 중%	36.8%	51.7%	11.5%	100.0%
	성별 중%	19.6%	25.7%	25.0%	25.7%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빈도	6	5	0	11
	대처방안 중%	54.5%	45.5%	0.0%	100.0%
	성별 중%	3.7%	2.9%	0.0%	3.3%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	빈도	17	29	4	50
	대처방안 중%	34.0%	58.0%	8.0%	100.0%
	성별 중%	10.4%	16.6%	10.0%	14.8%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빈도	8	13	5	26
	대처방안 중%	30.8%	50.0%	19.2%	100.0%
	성별 중%	4.9%	7.4%	12.5%	7.7%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빈도	52	52	7	111
	대처방안 중%	46.8%	46.8%	6.3%	100.0%
	성별 중%	31.9%	29.7%	17.5%	32.8%
구체적으로 자살방법을 생각	빈도	9	6	4	19
	대처방안 중%	47.4%	31.6%	21.1%	100.0%
	성별 중%	5.5%	3.4%	10.0%	5.6%
안정제 등 약물 복용	빈도	0	1	0	1
	대처방안 중%	0.0%	100.0%	0.0%	100.0%
	성별 중%	0.0%	0.6%	0.0%	0.3%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빈도	2	5	1	8
	대처방안 중%	25.0%	62.5%	12.5%	100.0%
	성별 중%	1.2%	2.9%	2.5%	2.4%
자살에 대한 생각 한적 없다	빈도	22	6	6	34
	대처방안 중%	64.7%	17.6%	17.6%	100.0%
	성별 중%	13.5%	3.4%	15.0%	10.1%
기타	빈도	15	13	3	31
	대처방안 중%	48.4%	41.9%	9.7%	100.0%
	성별 중%	9.2%	7.4%	7.5%	9.2%
전체	빈도	163	175	40	378
	대처방안 중%	43.1%	46.3%	10.6%	100.0%
	성별 중%	100.0%	100.0%	100.0%	100.0%

*다중응답

자살욕구 대처방안에 대해 성별로 비교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학생은 52명(46.8%), 여학생은 52명(46.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잠을 잔다’가 높게 나타났다. 잠을 잔다고 응답한 학생의 성비를 보면 남학생이 32명(36.8%), 여자는 45명(51.7%)로 나타났다.

(3) 단과대별 자살욕구 대처방안

<표 69> 단과대별 자살욕구 대처방안

(N=376, 단위: 명)

구분	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잠을 잔다	빈도	13	3	7	10	7	10
	대처방안 중%	14.8%	3.4%	8.0%	11.4%	8.0%	11.4%
	대학 중%	21.0%	33.3%	58.3%	17.2%	36.8%	23.8%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빈도	0	0	0	1	0	1
	대처방안 중%	0.0%	0.0%	0.0%	9.1%	0.0%	9.1%
	대학 중%	0.0%	0.0%	0.0%	1.7%	0.0%	2.4%
친구 등에게 말했다	빈도	10	0	1	11	5	5
	대처방안 중%	20.0%	0.0%	2.0%	22.0%	10.0%	10.0%
	대학 중%	16.1%	0.0%	8.3%	19.0%	26.3%	11.9%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빈도	6	1	1	4	2	2
	대처방안 중%	23.1%	3.8%	3.8%	15.4%	7.7%	7.7%
	대학 중%	9.7%	11.1%	8.3%	6.9%	10.5%	4.8%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빈도	20	2	1	17	3	14
	대처방안 중%	18.2%	1.8%	0.9%	15.5%	2.7%	12.7%
	대학 중%	32.3%	22.2%	8.3%	29.3%	15.8%	33.3%
구체적으로 자살방법을 생각한다	빈도	6	0	0	4	1	0
	대처방안 중%	31.6%	0.0%	0.0%	21.1%	5.3%	0.0%
	대학 중%	9.7%	0.0%	0.0%	6.9%	5.3%	0.0%
안정제 등 약물 복용	빈도	0	0	0	0	1	0
	대처방안 중%	0.0%	0.0%	0.0%	0.0%	100.0%	0.0%
	대학 중%	0.0%	0.0%	0.0%	0.0%	5.3%	0.0%
자살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 살펴본다	빈도	2	0	0	1	0	1
	대처방안 중%	25.0%	0.0%	0.0%	12.5%	0.0%	12.5%
	대학 중%	3.2%	0.0%	0.0%	1.7%	0.0%	2.4%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 없다	빈도	1	1	1	6	0	5
	대처방안 중%	3.1%	3.1%	3.1%	18.8%	0.0%	15.6%
	대학 중%	1.6%	11.1%	8.3%	10.3%	0.0%	11.9%
기타	빈도	4	2	1	4	0	4
	대처방안 중%	12.9%	6.5%	3.2%	12.9%	0.0%	12.9%
	대학 중%	6.5%	22.2%	8.3%	6.9%	0.0%	9.5%
전체	빈도	62	9	12	58	19	42
	대처방안 중%	16.5%	2.4%	3.2%	15.4%	5.1%	11.2%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대학				전체	
	공과대학	IT대학	예술창작학부	스포츠학부		
잠을 잔다	빈도	8	28	1	1	88
	대처방안 중%	9.1%	31.8%	1.1%	1.1%	100.0%
	대학 중%	13.1%	26.9%	50.0%	14.3%	23.4%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빈도	3	6	0	0	11
	대처방안 중%	27.3%	54.5%	0.0%	0.0%	100.0%
	대학 중%	4.9%	5.8%	0.0%	0.0%	2.9%
친구 등에게 말했다	빈도	7	10	0	1	50
	대처방안 중%	14.0%	20.0%	0.0%	2.0%	100.0%
	대학 중%	11.5%	9.6%	0.0%	14.3%	13.3%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빈도	7	3	0	0	26
	대처방안 중%	26.9%	11.5%	0.0%	0.0%	100.0%
	대학 중%	11.5%	2.9%	0.0%	0.0%	6.9%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빈도	22	30	0	1	110
	대처방안 중%	20.0%	27.3%	0.0%	0.9%	100.0%
	대학 중%	36.1%	28.8%	0.0%	14.3%	29.3%
구체적으로 자살방법을 생각한다	빈도	4	3	0	1	19
	대처방안 중%	21.1%	15.8%	0.0%	5.3%	100.0%
	대학 중%	6.6%	2.9%	0.0%	14.3%	5.1%
안정제 등 약물 복용	빈도	0	0	0	0	1
	대처방안 중%	0.0%	0.0%	0.0%	0.0%	100.0%
	대학 중%	0.0%	0.0%	0.0%	0.0%	0.3%
자살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 살펴본다	빈도	0	3	0	1	8
	대처방안 중%	0.0%	37.5%	0.0%	12.5%	100.0%
	대학 중%	0.0%	2.9%	0.0%	14.3%	2.1%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 없다	빈도	3	14	0	1	32
	대처방안 중%	9.4%	43.8%	0.0%	3.1%	100.0%
	대학 중%	4.9%	13.5%	0.0%	14.3%	8.5%
기타	빈도	7	7	1	1	31
	대처방안 중%	22.6%	22.6%	3.2%	3.2%	100.0%
	대학 중%	11.5%	6.7%	50.0%	14.3%	8.2%
전체	빈도	61	104	2	7	376
	대처방안 중%	16.2%	27.7%	0.5%	1.9%	100.0%
	대학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중응답

자살충동 욕구 대처방안에 대해 대학별로 비교하였다. 먼저 응답률은 IT대학, 인문대학, 공과대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충동이 들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응답이 IT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잠을 잔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IT대학, 인문대학, 공과대학에서 모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대처방안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살충동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학생상담센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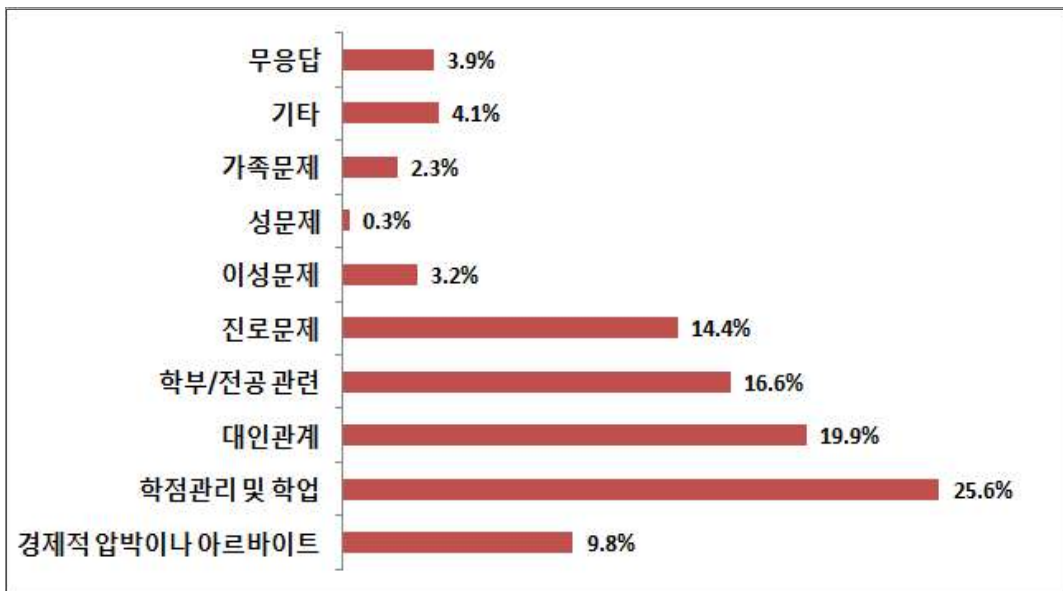
1)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원인

<표 70>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원인

(N=2,164,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학부/전공 관련	359	16.6%
진로 문제	311	14.4%
대인 관계	430	19.9%
경제적 압박이나 아르바이트	213	9.8%
가족 문제	50	2.3%
학점관리 및 학업	553	25.6%
이성 문제	69	3.2%
성 문제	6	0.3%
기타	89	4.1%
무응답	84	3.9%
합계	2,164	100.0%

*다중응답



<그림 17>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원인

신입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학점관리 및 학업’이 553명(25.6%)로 나타났고, ‘대인관계’가 430명(19.9%), ‘학부/전공 관련’이 359명(16.6%)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조사에 참여한 신입생들의 62% 가량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 ‘학점관리 및 학업, 대인관계, 학부/전공 관련’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한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심리적 갈등이나 어려움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표 71> 심리적 갈등 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필요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필요하다	1,112	53.6%
필요치 않다	878	42.3%
무응답	86	4.1%
합계	2,076	100.0%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심리상담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112명(53.6%),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878명(42.3%)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교 신입생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시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대학 내 심리상담전문가 도움 요청 의사

<표 72> 대학 내 심리적 고민 전문가의 필요여부

(N=2,076,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의사 있음	1,367	65.8%
의사 없음	621	29.9%
무응답	88	4.3%
합계	2,076	100.0%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고민해결과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의사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367명(65.8%), ‘의사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621명(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교 신입생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시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고자 하는 상담주제

<표 73> 단과대별 상담 받고 싶은 주제

(N=2,480명, 단위: 명)

구분	정체성	정서	가족관계	이성관계	적성 및 진로	학점관리 및 학업	중독	대인관계	기타	전체
인문 대학	59 2.4%	66 2.7%	9 0.4%	13 0.5%	95 3.8%	54 2.2%	4 0.2%	16 0.6%	5 0.2%	321 12.9%
자연 과학 대학	12 0.5%	12 0.5%	0 0.0%	7 0.3%	25 1.0%	16 0.6%	0 0.0%	6 0.2%	1 0.0%	79 3.2%
법과 대학	7 0.3%	9 0.4%	1 0.0%	1 0.0%	29 1.2%	10 0.4%	0 0.0%	5 0.2%	0 0.0%	62 2.5%
사회 과학 대학	64 2.6%	51 2.1%	6 0.2%	17 0.7%	86 3.5%	58 2.3%	2 0.1%	22 0.9%	7 0.0%	313 12.6%
경제 통상 대학	23 0.9%	21 0.8%	0 0.0%	9 0.4%	52 2.1%	18 0.7%	1 0.0%	7 0.3%	2 0.1%	133 5.4%
경영 대학	68 2.7%	47 1.9%	7 0.3%	21 0.8%	125 5.0%	62 2.5%	1 0.0%	17 0.7%	4 0.2%	352 14.2%
공과 대학	73 2.9%	59 2.4%	11 0.4%	39 1.6%	154 6.2%	101 4.1%	2 0.0%	29 1.2%	7 0.3%	475 19.2%
IT 대학	139 5.6%	92 3.7%	17 0.7%	65 2.6%	193 7.8%	119 4.8%	9 0.4%	28 1.1%	12 0.5%	674 27.2%
예술 창작 학부	8 0.3%	9 0.4%	0 0.0%	2 0.1%	2 0.1%	0 0.0%	0 0.0%	0 0.0%	0 0.0%	21 0.8%
스포츠 학부	3 0.1%	5 0.2%	3 0.1%	5 0.2%	21 0.8%	11 0.4%	1 0.0%	1 0.0%	0 0.0%	50 2.0%
전체	456 18.4%	371 15.0%	54 2.2%	179 7.2%	782 31.5%	449 18.1%	20 1.0%	131 5.3%	38 1.5%	2,480 100.0%

*다중응답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주제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으로는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고 싶은 주제는 ‘적성 및 진로’가 782명(31.5%), ‘정체성’ 456명(18.4%), ‘학점관리 및 학업’이 449명(18.1%), ‘정서’가 371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설문조사는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신입생 단체심리검사에 응한 학생들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2,076명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6년 신입생 실태조사는 정신건강실태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대학생활에 관한 문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 정도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양성평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여 예방 및 대처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일반적 인적사항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나이는 만 19세가 683명(32.9%)이고, 만 18세는 680명(32.8%)으로 이 두 연령대가 전체 응답자의 65.7%이다. 종교로는 무교가 1,325명(63.9%)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가 453명(21.8%)로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의 주성장지는 경기도 및 수도권이 41.3%, 서울이 33.0%로 전체학생의 74.3%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입시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에서 바로 진학한 학생이 62.2%로 가장 높았고, 재수를 통해 입학한 학생이 25.0%였다.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독교인이 아님을 고려하여 볼 때, 문화채플이나 열린 예배, 봉사활동 등을 확대시켜 기독교 정신에 대해 편안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 및 경기 지역을 벗어난 지방에 근거지를 둔 학생들은 약 20% 이상이며 이들은 기숙사 거주나 자취를 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온 경우 새로운 환경과 거주지의 변화로 대학생활 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기숙사 시설의 확대를 비롯하여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에 있어 삼수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6.9%였다. 한국 사회가 연령에 민감하고 집단 문화에 있어 또래문화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진학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976명(45.6%), 경험과 교양의 습득을 위해서 448명(20.9%), 학문과 진리의 탐구가 192명(9.0%)로 나타났다. 본교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990명(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275명(12.8%), 학교의 명성이 129명(6.0%)로 나타났다. 한편,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합격 가능성'을 이유로 입학한 학생들이 363명(17.4%)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교와 학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입학한 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의 장점이거나 특성을 발굴하려는 단과대나 학과의 노력을 바탕으로, 본교의 장점을 부각하고 학과에 대한 특성을 접목시킨 온오프라인 홍보 자료 개발 및 다양한 입시 설명회 개최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정신건강실태

1) 성적자기결정능력

본 영역은 올해부터 새롭게 조사된 정신건강영역이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성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 등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역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양성평등과 성관련 문제들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에 발맞춰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성적자기결정능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 2,062명 중 성적자기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입생은 197명(9.5%)로 나타났고, 위험수준은 1,034명(49.8%), 노력 필요는 831명(40%)로 나타났다. 성적자기결정능력의 위험수준 및 노력필요가 89.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적자기결정능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개선 및 법령과 처벌 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업성적 및 취업준비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인성 교육하고 지도하는 측면 또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신입생 OT 및 각 단과대 OT 시 집합교육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및 동영상 교육, e-campus를 활용한 온라인 예방교육과 같은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2) 음주

음주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 2,039명(무응답 제외) 중 비중독군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01명(72.3%), 문제성 음주 상태는 239명(11.5%),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는 299명(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 중 비중독군은 787명(69.4%), 여학생은 598명(77.1%)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7.7%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문제 음주 상태는 남학생이 154명(13.6%)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72명(9.3%), 알코올 중독 가능성은 남학생 173명(15.3%), 여학생 96명(12.4%)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알코올 중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발간된 본교의 실태조사 보고서와 비교해볼 때, ‘문제성 음주상태’는 2014년 8.8%, 2015년 11.2%로 2016년 11.5%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 또한 2014년 10.9%, 2015년 11.2%, 2016년 14.4%로 역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경우 이미 중독군으로 들어선 후의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보건실 또는 학생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학생의 올바른 음주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예방 방법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대별 음주에 관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인문대학은 경제통상, IT대학에 비해 양호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단과대학의 성비차이가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통상대학과 IT대학은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대학의 경우는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비의 차이가 음주 사용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인터넷 이용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 2,076명 중 무응답이 26명(1.3%), 일반사용군이 1,199명(57.8%), 잠재적 위험사용군 I 이 677명(32.6%), 잠재적 위험사용군 II가 165명(7.9%), 고위험사용군이 9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0.4%로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위험사용군 I · II에 포함시켜보았을 때 40.9%로 학생의 1/3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일반사용군’은 남학생이 678명(59.8%), 여학생이 430명(5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잠재적 위험사용군 I’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3% 높게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사용군 II’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7%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사용군’에서는 남자가 0.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학업적, 신체적, 대인 관계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조절이 중요하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컴퓨터 사용시간 지킴이 역할을 부탁하여 사용시간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불안

불안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 2,076명 중 무응답이 67명(3.2%), 양호한 상태의 학생이 2,001명(96.4%), 높은 불안 상태가 5명(0.2%), 상당히 높은 불안 상태가 3명(0.1%)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 상태, 심한 불안 상태, 극심한 불안 상태의 학생들이 총 93명(5.7%)으로 나타났다. ‘불안’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양호 상태’는 남자가 1,097명(96.7%), 여자가 751명(97.0%)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 변화나 감정 기록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은 현재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추후 우울증 또는 무기력, 의지 저하 등의 문제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주요 불안이 학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이완기법이나 명상을 포함한 불안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세미나를 상시적으로 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심한 불안을 겪는 학생들은 상담센터에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5) 우울

우울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이 245명(11.8%), 경도의 우울이 493명(23.7%), 정서적으로 양호함이 1,279명(6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약 35.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본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신입생의 경도 우울은 20.8%였고 2016년에는 그보다 약 3%가 증가한 23.7%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작년 신입생 우울증 비율이 6.2%, 2016년 신입생 우울증 비율은 11.8%로 작년도 대비 신입생의 우울증 비율이 5.6%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우울 대처와 조절을 위한 적극적 개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정서적으로 양호함'은 남학생이 736명(64.9%)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449명(58.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8.9%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41명(11.6%)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경기·충청권에 소재한 5개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우울감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최고 19.6%의 대학생이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며 41.3%의 학생들이 가벼운 우울 증세를 보여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평가 등으로 대변되는 경쟁에 대한 압박, 대인관계의 피상성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자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수 2,076명 중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는 학생은 292명(14.1%),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해 본 적 없는 학생은 1,693명(8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았을 때, 총 292명 중 남학생 122명(41.8%), 여학생 146명(50.0%)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9.2% 높았다. 응답자 중 자살충동의 주된 이유는 성적 및 진학문제 134명(44.2%), 외로움과 고독 70명(23.1%)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 2,076명 중 '지난 1개월 동안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7명(5.2%)이었다. 자살충동을 느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111명(29.4%), 잠을 잔다 87명(23.0%)으로 회피적, 수동적인 방식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2.4%를 차지했다. 수동적인 방식으로 자살충동에 대처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와 상담센터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입생들의 가장 주된 자살충동의 이유로 '성적 및 진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대학 입시 준비 및 수능시험 결과에 따른 대학진학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대학 입학 후 경험하는 익숙하지 않은 교육환경과 학과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살충동(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 20대는 7.9%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¹⁴⁾. 이 수치를 본교 신입생들의 자살충동 경험 비교할 때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살충동 경험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자살 관련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신입생 역량강화와 진로탐색 수업과 같은 교양수업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스크리닝하여 자살생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또한 우울함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쉽고 편안하게 상담센터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와 상담센터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각 영역에 대한 응답을 평가한 결과, 성별에 따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다룰

14)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예컨대,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 항목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알코올사용과 우울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약 8%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성 음주 및 알코올 중독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8%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우울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8%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충동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9%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발달 및 생활태도를 위해 성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안내자료 및 강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학업과 진로 및 대인관계 영역은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동시에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입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해서는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낮은 상담센터에 대한 방문을 어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지도 교수들이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교육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대학생활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학점관리 및 학업 553명(25.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 상위 4가지 중 두 번째로 높은 나타내는 대인관계(19.9%)를 제외하고는 학부 및 전공(16.6%), 진로문제(14.4%)로 모두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에 대한 적응 및 대학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대학생활 및 진로설정, 직업선택, 인생설계 등 개인의 학업성취는 물론 진로와 취업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학시점부터 학과교수가 배정되는 ‘진로지도교수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절해줄 수 있도록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지도교수와 학생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학생상담센터와 각 학과의 원활한 연계과정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과 교수는 수업시간을 통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만나게 되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매우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계이기 때문에, 진로지도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제지간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진로지도교수들은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되어있는 상담센터를 통해 학생 상담 관련 지식과 가이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센터는 진로지도 교수를 위한 가이드북 또는 안내자료 발간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진로지도교수제도의 시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고 싶은 주제에 관한 질문에는 적성 및 진로 분야가 782명(31.5%), 정체성이 456명(18.4%), 학점관리 및 학업은 449명(18.1%)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 진로와 적성분야 그리고 학점관리 및 정체성은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교내 각 부처들의 특성에 맞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진로와 학점관리 및 학업 등은 경력개발센터와 교육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문제가 있을시 어려움 없이 관련 부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학

생 관련 부처의 특성 및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교내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체성과 같은 스트레스요인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임으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검사,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센터의 역할이 주요하게 대두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교 신입생들의 일반적인 사항, 정신건강 실태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성적 및 학업, 진로 문제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우울, 불안, 음주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험요인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위험 요인이나 자살충동에 대처하는 방식은 주로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아성장을 돕고 자살충동과 같은 위기개입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학과 및 학생지원 부서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통합적인 학생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부록1 : 정신건강 가이드

[음주]

1. '알코올 중독'이란?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술에 의존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즉, 자꾸 술이 마시고 싶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의지로는 마시는 술의 양이나 술 마시는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하는 경우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 “현재 20세 이상 성인 중 10.9%가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한다.”

2. 알코올 중독의 원인

알코올 중독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긴다. 생물학적 요인인 유전은 알코올 관련 장애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알코올중독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비해 알코올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라는 보고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술을 잘 마시는 부모에 대한 모델링이나 과음이나 폭음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행동통제의 부족, 부정적 정서성, 반사회적 특성이 알코올 중독에 취약한 성격특성이 된다.

3. 대학생들의 음주유형

많은 대학생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그렇지만 때로는 가족관계, 대인관계, 낮은 학점, 장애 및 진로 결정에 대한 압력과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술자리를 찾기도 한다. 술자리가 찾아지고,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뀌게 된다. 개인의 음주동기에 따라 음주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 ① **실험형**: 호기심에서 한두 번 시험 삼아 마셔본 경우로 개인적, 심리적 문제 때문에 술은 마신 것은 아닌 경우
- ② **사교형**: 동료,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편으로 주로 사교 모임을 통해 가끔 술을 마시는 경우
- ③ **약물형**: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혹은 음주행위 자체를 즐기면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로 주로 혼자 마시게 되는데, 괴로운 문제나 정신적 압박감에서 도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 ④ **중독형**: 심리적, 신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 술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로 술병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며 강박적으로 술을 마셔대는 경우

4. 치료

알코올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 심리치료가 도움이 된다. 고민과 갈등을 상담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음주를 치료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상담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알코올중독이 심할 경우 입원치료를 받는다. 금단현상이 나타나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견디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의 상황에서는 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술로부터 차단된 병원에서 금단현상을 줄일 수 있는 진정제를 투여 받으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화된 치료과정을 밟아야 된다. 여기에는 신체기능의 회복을 위한 약물치료와 영양보충, 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이 치료과정에 포함된다.

단주에 대한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조모임에서 참여하고 자신의 결심과 실천사항을 말하고 지지받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단주 동맹(Alcoholic Anonymous)라는 자조집단은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민간인 금주운동 단체로, 여기서는 공통된 규칙 하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알코올 의존을 극복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금주와 중독자의 자조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

5. 생활가이드 (셀프케어방법)

술을 끊거나 줄이기를 바란다면, 그 이유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술에 대한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 목록을 꺼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나 마실지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목표를 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음주량을 줄일 수 있다.

- ① 집에 술병을 사들고 가지 않는다.
- ② 천천히 마신다. 천천히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마시고, 다음 잔까지 한 시간 정도 여유를 갖는다.
- ③ ‘술 쉬는 요일’을 만든다. 성공하면 ‘술 쉬는 주’를 만든다.
- ④ 술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
- ⑤ 알코올 다이어리를 작성하여, 문제 음주 행동의 촉발요인(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 장소, 스트레스 등)을 확인하여 알아내고 이를 피하도록 한다.
- ⑥ 술 마시는 대신 할 수 있는 활동(예: 외식, 영화, 운동)을 해보자.
- ⑦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되, 절대 포기하지는 말자.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이란?

과다한 인터넷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업무적, 관계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 단계에 이르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았을 때 불안과 초조감 같은 금단현상과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는 내성이 나타난다.

2. 인터넷 중독 증상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구체적 증상은 학업적, 신체적, 대인 관계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① 학업 태도의 변화: 학업 수행이 힘들어 지고, 성적이 저하될 수 있다.
- ② 신체적 문제: 수면량의 부족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증가로 면역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대인관계 어려움: 부모,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고립될 수 있다.
- ④ 부정적 정서 경험: 장기적으로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 ⑤ 행동적 측면: 가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아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잦은 짜증 및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도 흔하다.

3. 인터넷 중독의 원인

인터넷 중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변인이 함께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현실 세계에 마음 붙일 데가 없을 때 인터넷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①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우울, 충동성, 자극 추구 성향, 주의 산만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 중에 인터넷 중독자가 많다.
- ② 부모의 양육태도/대인관계: 부모나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방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인터넷상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 ③ 인터넷 환경: 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PC방 등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
- ④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 인터넷은 현란하고 자극적여서 시간 개념을 쉽게 잃게 만든다.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특성도 있다.

4. 인터넷 중독 유형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는가가 인터넷의 중독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게임중독, 채팅중독, 쇼핑중독, 음란물중독, 핸드폰중독, 인터넷도박중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5. 생활가이드 (셀프케어 방법)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대해 지적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며 더욱 인터넷에 몰두하게 될 수 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인터넷 과도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인터넷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중독 탈출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① 컴퓨터를 거실이나 다른 방에 놓는다.
- ② 인터넷 사용을 하더라도 식사시간과 취침시간은 철저히 지킨다.
- ③ 컴퓨터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점검한다.
- ④ ‘인터넷 쉬는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오락과 휴식의 도구로써 컴퓨터 사용을 줄인다. 인터넷 외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른 활동들, 취미생활, 운동, 문화생활을 늘린다.
- ⑥ 매일 일정 개수의 외국어 단어를 외운 후 인터넷을 사용한다.
- ⑦ 애완동물을 길러본다.
- ⑧ 친구들과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논다.
- ⑨ 가족에게 인터넷 사용시간 지킴이 역할을 부탁하여 사용시간을 통제한다.

[자살]

1. '자살'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을)과 caedo(죽이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이란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심리적 의미에서 자살은 행동을 감행한 당사자가 자신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채 짧은 기간에 행한 의도적인 자해행위를 말한다.

2. 자살의 원인

자살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긴다. 생물학적 요인에는 가족 내 자살력, 만성 신체 질환, 그리고 기타 장애가 포함된다. 심리학적 요인에는 아동기 외상,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 염세적 성향이 포함된다. 환경적 요인에는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 기능의 약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대중문화, 매체 등을 통해 자살을 쉽게 접하게 되는 환경이 포함된다.

3. 대학생 자살시도 동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시도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① 우울, 절망, ② 가족갈등, ③ 실연, 이별, ④ 대인관계 문제, ⑤ 질병,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4. 자살 경고 표시 알아두기

주변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살시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① 장기간 지속된 우울 혹은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 ②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보이며 복수를 하려할 때
- ③ 생각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에 탐닉할 때
- ④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양이 많아질 때
- ⑤ 친구, 가족, 사회로부터 떨어지려고 할 때
- ⑥ 죽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 (죽음·자살에 대한 언급, 유언장 작성 등)
- ⑦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주는 등 신변 정리를 할 때
- ⑧ 자살하기 위해 자살에 사용할 도구나 장소를 찾을 때
- ⑨ 자살/자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그런 시도를 할 때

5. 자살하려는 사람을 돕는 방법

주변에 자살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협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만약 자살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나서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구를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있다.

- ① 주의 깊게 자살의 징후를 살펴며, 주위에서 관심을 보인다.

- ②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질문은 직접적인 형태로 자살에 대해 자유스럽고 공개적으로 묻는다.
- ③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 감정을 수용한다.
- ④ 자살이 옳은지, 나쁜지 또는 심리상태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논쟁하지 않도록 한다. 인생의 가치 또는 도덕관으로 설득하지 말아야 한다.
- ⑤ 결정적인 묘수를 제공하려고 조언하지 않도록 한다.
- ⑥ 쇼크 받은 듯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거리감을 만들게 된다.
- ⑦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 알려야 한다. 대안이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주도록 한다. 단, 그럴듯한 확신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살위기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돕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모호하게라도 자살을 표현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mail 상담 :

한국자살예방협회 홈페이지(www.suicideprevention.or.kr)의 사이버상담실

◎ 관련기관 전화상담 :

- 820-0832, 0856 (송실대 상담센터)
- 1577 - 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88 - 9191 (생명의 전화)

[우울증]

1. '우울증'이란?

우울증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동안 저조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유지되는 침울한 상태이다. 우울증은 상실이나 실망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 같은 병이다. 하지만 감기도 방치하면 폐렴이 되는 것처럼 우울증도 방치하면 심각해질 수 있다. 즉 우울증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2. 우울증의 증상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신체 생리적 증상을 동반한다.

- ① 정서적 증상: 슬픔을 비롯하여 좌절감, 불행감, 죄책감, 공허감, 고독감, 무가치감, 허무감, 절망감 등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가 지속된다. 우울한 기분이 심한 경우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정서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 ② 인지적 증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된다.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인생에 대해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증가되어, 심해지면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다.
- ③ 행동적 증상: 일을 시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일을 미루고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된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쉽게 지치며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 불면증과 같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과다수면증과 같은 이상반응도 나타난다. 초조하여 불안정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④ 신체 생리적 증상: 식욕이 저하되어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식욕이 증가하여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도 있다.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활력이 저하되며, 성적인욕구나 성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다. 소화불량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며 면역력이 저하된다.

3. 예후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 가족지지와 있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고, 인격 장애가 없고, 발병이 늦을수록 예후가 좋다고 한다.

4. 치료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우울증상은 상담과 같은 심리치료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 우울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의 도움이 얻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5. 생활가이드 (셀프케어방법)

- ①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노력을 한다.
- ② 따뜻한 햇살을 쬐며 산책이나 줄넘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다.
- ③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등 감정표현을 한다. 웃음이 정신건강에 좋듯이 울음도 혈압을 낮추고 감정과 근육의 긴장을 줄여준다.
- ④ 오랜 기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한다.
- ⑤ 혼자 애쓰기 보다는 상담센터를 찾는다. 문제를 혼자 이기려고 하면 짐이 더 과도하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 상담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V. 부록2 : 양성평등 가이드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문화 속에서 가능하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 자율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와 같은 수동적인 의미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와 취향을 누릴 권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성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이 할 권리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의무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2. 친밀감과 성희롱의 애매한 경계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무시한 인권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사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①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②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통화,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나 행동
- ③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성희롱의 여부는 '동의'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동의'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언어적 몸짓이나 침묵 등의 행동은 상대방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언어표현으로 '예'라는 의사를 전달할 때만 진정한 '동의'의 의미가 성립된다.

▶ 동의의 기준

- ① 동의는 선택에 기초한다.
동의를 기본적으로 '예'와 '아니오'로 나뉜다. 동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며,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동의라고 볼 수 없다.
- ③ 동의는 동등한 힘이 있을 때 성립된다.
선배나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옳지 않다.
- ④ 두려워하면서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협박을 통해 얻어낸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다.

⑤ 심신미약 등의 판단력 저하의 상태에서의 '예'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혼탁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성폭력 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정신적 고통, 신체손상, 행동제약 등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행위가 성폭력에 포함된다. 우리사회는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① 수면 중이거나 술 취한 상대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하는 경우
- ② 갑자기 지나가며 가슴이나 엉덩이를 툭 치는 등의 기습추행 하는 경우
- ③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혹은 추행하는 경우
- ④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는 경우
- ⑤ 13세 미만 아동과 폭행·협박 없이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 ⑥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 영상을 전송·게시 하는 경우
- ⑦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배포·판매하는 경우
- ⑧ 동의하에 신체를 촬영한 후 의사확인 없이 게시·배포·판매 하는 경우
- ⑨ 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경우
- ⑩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샤워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4. 대처방법

▶ 피해자 대처

- ① 상대방의 언행으로 내가 느끼는 피해감정에 확신을 갖는다.
- ② 피해의 영향(감정, 생각, 행동)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현한다.
- ③ 상대방에게 행위중지와 행위책임을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 ④ 양성평등상담센터에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신속히 요청한다.

▶ 행위자 대처

- ① 나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수용한다.
- ② 반성하고 즉각 진심어린 사과한다.
- ③ 가해행동으로 인한 책임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④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바로 잡는다.

▶ 주변 동료 등 제3자 대처

학과·동아리·섹션·각종 모임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방식이 문제 해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나 피해자 책임론적인 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져 사건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 2차 가해 하지 않도록 주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사건을 누설하는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는 경우
 피해자 및 사건 관련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사건을 묻거나 중재하려고 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와 주위 관련자들에게 언어적으로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강압을
 통해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사건 관련자들이 2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2차 가해
 로 규정하고 행위자 혹은 동조자에게 장계를 내릴 수 있다.

5.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 처리 과정

▶ 비공식 처리

양성평등상담센터 당사자 간 합의·중재 처리

▶ 공식처리

신고 및 접수

-신고: 피해자, 대리인, 제3자

-접수: 방문, 전화, 메일, 홈페이지

사건조사

-피해자 조사/ 피신고인 조사

-관련인 조사/ 증거자료 검토 및 조사

심의의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피해자 보호책/가해자 처벌에 관한 심의·의결

사건처리

-피해자: 상담 및 교육

-가해자: 상담 교육/ 가해자의 사과 및 징계

결과통보

-불복시 재심 신청

사건처리 전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함.

교내 방문 학생회관 502호 (상담센터)

전화 ☎ 02-820-0843

메일 ge-counsel@ssu.ac.kr

홈페이지 <http://counsel.ssu.ac.kr>

교외 여성긴급전화 ☎ 1366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 02-870-1700, 1117

V. 부록3 : 학생상담센터 이용가이드

1. ‘학생상담센터’ 소개

상담센터는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과 가족관계, 대인관계, 성문제, 진로문제, 학교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나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양성평등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정보 및 상담내용에 관한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2. 상담센터 업무

①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진행하는 상담방식입니다. 따라서 센터로 직접 오셔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상담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② 심리검사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통하여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적성 탐색검사(Holland), 성격선호도검사(MBTI), 다면적 인성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SCT) 등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신청 시 희망하는 심리검사를 하시고 다음주 중에 결과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실대 재학생에게 모든 심리검사는 무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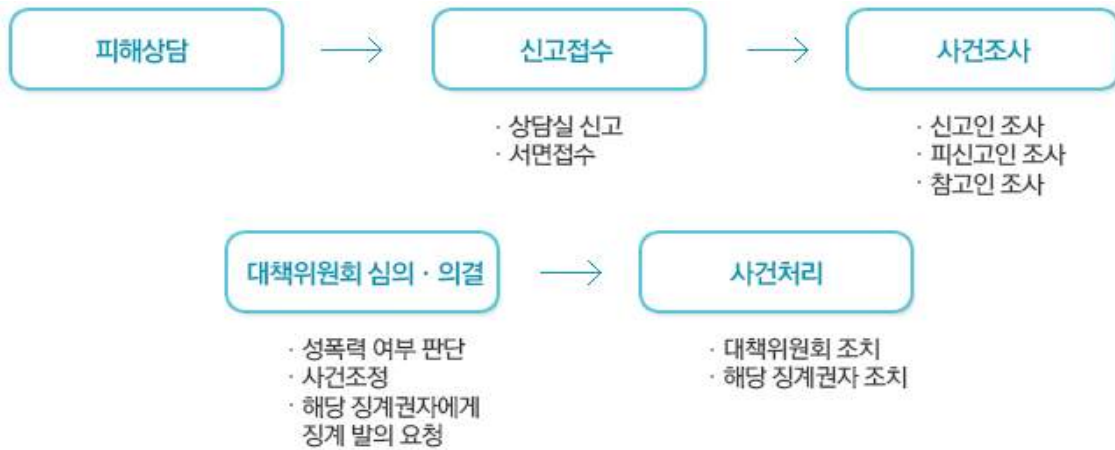
③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모두의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장입니다. 집단별 8-12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학기당 8회 정도 진행되며, 신청자는 모든 회기에 참석 가능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문 및 안내문에 공고되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④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 공식 절차



- 비공식 절차

비공식적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 과정 없이 상담기구의 개입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위와 같은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음과 같을 때 적용합니다.

- 비밀보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은 경우
- 사건의 해결방법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 가증성이 존재하는 경우
-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들의 개인적 노력이나 상담기구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건 대응책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 법률과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기관에 연계하여 사건해결을 지원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전화, 직접방문, 서면제출,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 02-820-0843
- 직접방문: 학생회관 502호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팀
- 서면제출: <http://counsel.ssu.ac.kr> → 피해신고서다운로드 → e-mail 제출
- E-mail: counsel@ssu.ac.kr

- 센터에서 하는 일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관련기관 연계 등의 대응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합니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예방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합니다.

⑤ 연례행사

- 신입생/재학생 실태조사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 정신건강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재학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행사입니다.

- 성(性) 바로알기 행사

양성평등한 성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여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또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상담센터 이용안내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신학생회관 502호 학생상담센터
- TEL : 02) 820-0832 / 0856
- FAX : 02) 828-7068
- E-mail : counsel@ssu.ac.kr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학기중 09:00 ~ 17:30 / 방학중 10:00 ~ 17:00)

2016 신입생 실태조사 설문지

※ 응답한 결과는 학생들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학생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대학			
인문대학	①	공과대학	⑦
자연과학대학	②	IT대학	⑧
법과대학	③	베어드학부대학	⑨
사회과학대학	④	예술창작학부	⑩
경제통상대학	⑤	스포츠학부	⑪
경영대학	⑥		
성별		남자 ①	여자 ②

학과					
기독교학과	①	법학과	⑮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㉔
국어국문학과	②	국제법무학과	⑯	전기공학부	㉕
영어영문학과	③	사회복지학부	⑰	기계공학과	㉖
독어독문학과	④	행정학부	⑱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㉗
불어불문학과	⑤	정치외교학과	⑲	건축학부	㉘
중어중문학과	⑥	정보사회학과	⑳	컴퓨터학부	㉙
일어일문학과	⑦	언론홍보학과	㉑	전자정보공학부	㉚
철학과	⑧	평생교육학과	㉒	글로벌미디어학부	㉛
사학과	⑨	경제학과	㉓	소프트웨어학부	㉜
수학과	⑩	벤처중소기업학과	㉔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㉝
물리학과	⑪	회계학과	㉕	미디어경영학과	㉞
화학과	⑫	경영학과	㉖	문예창작전공	㉟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⑬	금융학부	㉗	영화예술전공	㊱
의생명시스템학부	⑭	화학공학과	㉘	스포츠학부	㊲

I. 성에 대한 질문

●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합니다.

※ ‘기타’를 선택하는 경우 () 안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의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가-1로)
- ② 아니오(→나로)

가-1.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의 성폭력을 행한 상대는 누구입니까?

- ① 교제상대(연인) ② 학과 선배나 후배 ③ 동아리 선배나 후배
- ④ 친척(삼촌, 작은아버지 등) ⑤ 학과 동기 ⑥ 동아리 동기 ⑦ 교수
- ⑧ 가족(아버지나 오빠 등) ⑨ 기타()

가-2. 당신이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의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그냥 참고 없었던 일로 생각한다.
- ② 부모와 상의한다.
- ③ 친구와 상의한다.
- ④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친척, 교회, 교수, 기타).
- ⑤ 본인이 직접 법적대응(경찰서 등에 신고)을 한다.
- ⑥ 본교 상담센터의 양성평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⑦ 본교 외 성문제 관련 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⑧ 잘 모르겠으며 생각하고 싶지 않다.
- ⑨ 기타()

나. 우리 학교에는 상담센터의 양성평등팀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면서 성폭력 상황을 경험할 시 상담센터에 의뢰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나-1번으로)

나-1. 상담센터에 의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담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른다
- ②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
- ③ 상담을 해봐도 도움 안 될 것 같다 ④ 상담센터란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⑤ 비밀보장이 될 것 같지 않다
- ⑥ 기타()

내용		보기				
1	당신은 이성과 사귀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현재 교제 중 ② 현재 교제하지 않지만 경험이 있다 ③ 전혀 경험 없다				
2	이성 교제 시 경험한 신체적 접촉 수위는?	① 없었음 ② 가벼운 스킨십(손잡기 팔짱끼기 등) ③ 포옹 ④ 키스 ⑤ 애무(가슴 등에 대한 스킨십) ⑥ 성교				
3	사귀는 사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접촉 수위는?	① 그 어떤 스킨십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② 가벼운 스킨십(손잡기 팔짱끼기 등) ③ 포옹 ④ 키스 ⑤ 애무(가슴 등에 대한 스킨십) ⑥ 성교				
4	“원나잇”(만남 당일 섹스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②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③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④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	당신이 원나잇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②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③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④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동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②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③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④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	당신이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②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③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④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나 원인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좋아하다가 싫어지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상대에게 화가 날 때, 고마울 때 등의 내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좋다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교적인 모임에서 대개는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좋아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속상하겠지만 물러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성관계 전에 피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성적인 욕구나 지시에 대해 상대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묻고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상대의 감정과 느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성적접촉에 있어 내가 원하더라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상대가 잠이 들었거나 취해 있을 때 성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합의된 신체적인 접촉(포옹, 키스)을 하는 중에도 상대가 거부하면 중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에게 맞는 피임법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의 성 지향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의 성감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고 이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알코올

	내용	보기
다	지난 한 달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라	최근 1년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라-1번으로) ② 아니오(→1번으로)
라-1	1회 평균 음주량 7잔(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음주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① 전혀 안마심 ① 월 1회 미만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2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① 소주 1~2잔 미만 ① 소주 3~4잔 ② 소주 5~6잔 ③ 소주 7~9잔 ④ 소주 10잔이상
3	한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4	지난 1년간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5	지난 1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회 ③ 주 1회 ④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음 ④ 지난 1년 내에 있었음
10	친척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음 ④ 지난 1년 내에 있었음

Ⅲ. 인터넷

1. 당신의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스마트폰 이용시간 포함)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2-3시간 ④ 3-4시간 ⑤ 4시간 이상

2. 당신은 언제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만 3-5세 ② 만 6-7세 ③ 초등학교 저학년 ④ 초등학교 고학년
⑤ 중학생 ⑥ 고등학생 ⑦ 기타 ()

3. 당신은 주로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곳 한 곳만 골라주십시오.

- ① 집 ② 학교 ③ PC방 ④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읍면동사무소)
⑤ 장소구분 없음(스마트 폰, 무선인터넷 등 사용)

● 다음의 “인터넷”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포함됩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	사이버 세상과 현실이 혼동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을 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6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8	일상에서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인터넷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9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1	“그만 해야지”하면서도 번번이 인터넷을 계속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2	일상 대화도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3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부터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4	일단 인터넷을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5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금방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16	인터넷을 하느라 다른 활동이나 TV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다	①	②	③	④

17	인터넷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두해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인터넷에 중독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IV. 불안

	내용	전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1	나는 평온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자주 후회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언짢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닥쳐올지도 모를 불행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쉬고 있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포근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초조하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안절부절하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아주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느긋한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심하게 흥분되어 몸이 떨릴 지경이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즐겁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V. 우울

마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	--------------

※ 다음 문항들을 읽고,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거의 드물게(1일 이하)	가끔(1-2일)	자주(3-4일)	거의 대부분(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6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①	②	③	④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0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①	②	③	④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6	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18	슬픔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VI. 자살

	내용	보기
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① 예 (→바-1로) ② 아니오 (→VII. 기타로)
바-1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가지를 고르시오)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직장 문제 ③ 외로움, 고독 ④ 가정불화 ⑤ 성적 및 진학문제 ⑥ 이성문제 ⑦ 질환 및 장애 ⑧ 친구불화 ⑨ 기타 ()
1	지난 1개월 동안 당신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죽기를 바랐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지난 1개월 동안 당신은 자해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지난 1개월 동안 당신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지난 1개월 동안 당신은 자살을 계획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지난 1개월 동안 당신은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일생동안 한 차례라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① 잠을 잔다 ②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③ 친구 등에게 이야기 한다 ④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⑥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⑦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⑧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⑨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⑩ 기타 ()

VII. 기타

	내용	보기
가	지난 한 달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나	처음으로 흡연을 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① 중학교 이전 ② 중학교 때 ③ 고등학교 때 ④ 대학입학 이후
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을 흡연합니까?	① 하루에 반 갑 미만 ② 하루에 반 갑 정도 ③ 하루에 한 갑 정도 ④ 하루에 한 갑 이상
라	금연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VIII. 일반적인 사항

※ 아래의 모든 문항에 '기타'를 선택하는 경우 () 안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나이는? 만()세

1-1. 병역: ① 군필 ② 보충역 ③ 미필/면제 ④ 해당 없음

2.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2-1번으로) ② 천주교(→2-1번으로) ③ 불교(→2-1번으로)
④ 무교(→4번으로) ⑤ 기타()

2-1. 당신의 신앙생활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4년 ④ 5-10년 ⑤ 10-20년 ⑥ 20년 이상

2-2. 미사(예배) 참석 빈도는?

① 1년 3회 미만 ② 1년에 3-10회 ③ 월 1회 ④ 월 2-3회 ⑤ 주1회
⑥ 주 2-3회 ⑦ 주 4회 이상

2-3. 평소 당신의 기도의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

① 하지 않음 ② 급하거나 위기상황에만 함 ③ 월 2-3회 ④ 1주에 몇 번씩
⑤ 하루 1번 정도 ⑥ 하루에 몇 번씩

3. 나의 종교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4. 당신의 주 성장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시 ② 경기도 및 수도권 ③ 경상지역 ④ 전라지역 ⑤ 충청지역
⑥ 강원지역 ⑦ 제주도 ⑧ 기타()

5. 당신의 출신고교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인문계 고등학교 ② 실업계 고등학교 ③ 대안학교
④ 특수목적 고등학교 ⑤ 기타

6. 당신의 입시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① 바로 진학 ② 재수 ③ 삼수 ④ 사수 이상 ⑤ 기타()

7. 당신의 가족 형태는 어떻습니까? (중복 가능)

① 양부모가정 ② 한부모 가정 ③ 이혼가정 ④ 재혼가정
⑤ 본인 혼자 사는 가정 ⑥ 조손가정 ⑦ 맞벌이가정 ⑧ 다문화가정

⑨ 기타()

8. 당신의 입학 후 주거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자택 ② 친척집 ③ 자취 ④ 하숙 ⑤ 기숙사 ⑥ 고시원/독서실 ⑦ 기타

9. 대학 입학을 위해 어떤 사교육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① 한 과목 개인 과외 ② 두 과목 이상 개인 과외 ③ 한 과목 학원의 대형 강의
④ 두 과목 이상 학원의 대형 강의 ⑤ 학원의 소그룹 종합반 ⑥ 인터넷 강의
⑦ 특정 과목의 학원 소그룹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10. 대학 진학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② 인격 도야 ③ 경험과 교양의 습득
④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⑤ 뚜렷한 목적 없이 ⑥ 높은 지위 획득
⑦ 주위 사람들의 권유 ⑧ 학문과 진리의 탐구 ⑨ 기타()

11. 숭실대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합격할 가능성 ② 학교의 명성 ③ 기독교 학교여서 ④ 적성이 맞아서
⑤ 흥미가 있어 ⑥ 취직률과 취업전망 ⑦ 미래 비전과 맞아서
⑧ 주변 사람(부모님 등)이 권해서 ⑨ 외국 유학 등 특전이 있어서
⑩ 뚜렷한 이유가 없다 ⑪ 기타()

12. 현재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합격할 가능성 ② 학교의 명성 ③ 적성이 맞아서 ④ 학문적 흥미
⑤ 취직률과 취업 전망 ⑥ 미래비전과 일치해서 ⑦ 주변 사람이 권해서
⑧ 어릴 때부터 원해서 ⑨ 뚜렷한 이유가 없다 ⑩ 기타()

13.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공공부 ② 이성 및 대인관계 ③ 자격증 취득 ④ 취직준비
⑤ 대학 내 활동 ⑥ 영어공부 ⑦ 취미 등 다양한 활동
⑧ 등록금,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⑨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14. 대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성격문제 ② 가족문제 ③ 대인관계문제 ④ 이성관계 문제 ⑤ 경제문제
⑥ 학업문제 ⑦ 진로(취업)문제 ⑧ 건강문제 ⑨ 병역문제 ⑩ 성 문제
⑪ 기타 ()

15. 학교에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장학금(경제적 문제) ② 전문적인 심리상담 ③ 다양한 교과목개설
④ 진로 및 취업문제 ⑤ 학생 편의시설 개선(학생식당, 운동시설 등)
⑥ 동아리 활동 지원 ⑦ 기타()

16.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부/전공 관련 ② 진로문제 ③ 대인관계
- ④ 경제적인 압박이나 아르바이트 ⑤ 가족 문제 ⑥ 학점관리 및 학업
- ⑦ 이성문제 ⑧ 성문제 ⑨ 기타()

17. 위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고르세요.

- ①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 ② 존경하는 친척, 선배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 ③ 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한다.
- ④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기다린다.
- ⑤ 그 문제를 잘 이해하려고 자세히 분석한다.
- ⑥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버린다.
- ⑦ 상담기관이나 병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 ⑧ 기타 ()

18.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②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
- ③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④ 전공이 취업에 적절치 않아서
- ⑤ 학교 명성이 없어서 ⑥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 ⑦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몰라서
- ⑧ 중요한 타인(예, 부모 형제)과의 갈등 ⑨ 우유부단한 성격
- ⑩ 경제적 어려움 ⑪ 기타()

19.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없다면 그 이유는?)

20. 대학 내에 심리적 고민 해결과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없다면 그 이유는?)

21. 당신의 고민을 가장 많이 의논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 ① 부모 ② 형제 및 친척 ③ 학교상담센터 및 상담기관 ④ 선생님
- ⑤ 성직자 ⑥ 친구 ⑦ 기타()

22.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이용할 의사가 있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이용할 의사가 없다

22-1. 이용할 의사가 없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담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 ②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
- ③ 상담을 해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 ④ 상담센터란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⑤ 비밀보장이 될 것 같지 않다
- ⑥ 기타 ()

23. 상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 ② 스트레스관리 집단상담
- ③ 이성관계 증진 집단상담
- ④ 미술치료 집단상담
- ⑤ 진로 찾기 집단상담
- ⑥ 발표자신감 향상 집단
- ⑦ 기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4. 상담센터에서 가장 기대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 ① 개인심리상담
- ② 집단상담
- ③ 심리검사
- ④ 정신건강 관련 강연 및 워크샵
- ⑤ 진로 및 적성관련 강연 및 워크샵
- ⑥ 다양한 주제 및 인물과의 대화의 창
- ⑦ 기타 ()

25. 상담센터에서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 가장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중복가능)

- ① 정체성 및 자아성장
- ② 정서(불안, 우울, 공포 등)
- ③ 가족관계
- ④ 이성관계 및 성문제
- ⑤ 적성 및 진로
- ⑥ 학점관리 및 학업
- ⑦ 중독의 문제(예-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등)
- ⑧ 대인관계
- ⑨ 기타()

26. 현재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약간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7. 현재의 학부(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약간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8.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9. 그 밖에 상담센터나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학생의 정신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름		학번	
이메일			
휴대폰 번호			
피드백 방법	이메일		문자
			센터내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심리상담/양성평등 관련 서비스를 원하실 때는 연락을 주시거나 센터로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502호 (02-820-0881, 0856)

counsel.ssu.ac.kr / counsel@ssu.ac.kr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